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006-0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8호에 따른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

Contents

제1부

개요

I.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배경 및 특성	8
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배경	8
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특성	9

제2부

총론

I. 표준보육과정의 기초	14
1. 추구하는 인간상	14
2.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전제	15
3. 구성방향 및 체계	17
II. 목적과 목표	22
1. 목적	22
2. 목표	23
III. 편성과 운영	30
1. 편성	30
2. 운영	32
3. 교수·학습방법	35
4. 평가	38

제3부

0-1세 보육과정 각론

I. 기본생활	44
II. 신체운동	52
III. 의사소통	64
IV. 사회관계	77
V. 예술경험	87
VI. 자연탐구	96

제4부

2세 보육과정 각론

I. 기본생활	110
II. 신체운동	119
III. 의사소통	129
IV. 사회관계	141
V. 예술경험	152
VI. 자연탐구	16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01

개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I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고시배경 및 특성

0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배경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목표와 영유아의 발달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이들이 경험하게 될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육과정은 국가의 보육 방향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능력 있는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2004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05년 여성가족부가 「표준보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2006년 11월 10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0조 관련 표준보육과정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2007년 1월 3일 최초의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보육내용」(여성가족부 고시 제 2007-1호)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2세미만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점차 급변하는 사회와 보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6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1년 3월 공청회를 거쳐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원화로 운영되던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고시는 잠시 유보되었고, 우선 최초의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2011년 9월에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에 개정 고시를 앞두고 있던 「표준보육과정」에서 5세 유아를 위한 보육내용을 제외시키되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재 수정한 후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2012년 2월에 고시하였다. 「5세 누리과정」제정에 이어서, 2013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개발되어 2012년 7월에 고시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5세 누



리과정」이 개정되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

어린이집 0-5세 영유아의 연속적 경험과 연령간 발달적 연계를 위해서 「제2차 표준보육과정」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2013년 1월에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0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특성

2013년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되, 각론은 연령과 발달 수준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총론이 강화되었다. 총론에서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추구하는 인간상’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육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 할 때 기본 전제를 이루는 최소한의 중요 내용을 ‘표준보육과정의 기본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 기타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육경험을 제공하며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구성방향 및 체제에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강조하였던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보육과정의 전체 체제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구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성과 운영에서는 0-5세 영유아를 위해 보육경험을 편성하고 운영하며 실행할 때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운영 및 영유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각론에서는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이 있으며, 「3~5세 보육과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각론 내용으로 대신한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제정 배경을 이해하고, 총론 전체와 각론 중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의 수준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설서를 개발하였다. 「3~5세 보육과정」의 보육 내용은 2013년에 2월에 보급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해설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기본전제, 구성방향 및 체제, 목적과 목표, 편성과 운영의 내용을 설명하는 총론과 0-1세 보육과

정, 2세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수준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해설서」를 전국 43,000 여개의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가. 보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용어 재정립

보육대상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 2조 1항’에 의거하여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가 보육대상이다. 그러나 ‘취학 전 6세 미만 아동’란 용어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개발되면서 영유아의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대상은 ‘0세부터 5세 영유아’로 일관되게 사용하며, 이에 따라 각론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한다.

나. 총론의 정비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의 총론은 표준보육과정의 개념을 포함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보육의 목적과 목표, 보육 계획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총론은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총론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구성 틀을 고려하여 0-5세 영유아를 포함하는 표준보육과정으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기초는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전제, 구성방향 및 체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보육과정의 총괄 목표를 명시하고, 편성과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 인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추가하고,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인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인간상을 추가하여 강조하였다.

다. 영역별 목표 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는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에 따라 구성하였다. 0-1세와 2세 영아를 위한 목표를 6개 영역별로 제시하고, 목표에 서술된 내용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정리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은 5개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되 0-1세와 2세 보육과정의 목표 제시 순서를 동일하도록 하였다.

보육내용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를 고려하되 모든 영유아가 편견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음을 중요시하며 수준별,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0-1세 보육과정」은 0세와 1세 영아를 대상으로 4개 수준으로 세부내용을 제시하였고, 「2세 보육과정」은 2세 영아를 대상으로 2개 수준으로 세부내용을 구분하여 보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3-5세 보육과정」은 연령별로 누리과정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라. 균형있는 영유아 중심 강조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 흥미, 주변의 친근한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 기술, 바람직한 태도,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놀이 및 활동과 교사·환경·도래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0-1세 영아, 2세 영아는 일상생활 및 개별 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3-5세 유아는 실내·실외 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 활동, 일상생활 및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일과편성과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제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편성하며,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개인차, 경험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포함하되 주도적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보육과정은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하고 각 어린이집과 보육실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한편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영역으로 구성하여 보육계획(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재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바. 수준 및 연령별 보육과정 간의 연계성 고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중 「0-1세 보육과정」은 「2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었고 5세 보육과정은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02

총론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I | 표준보육과정의 기초

01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주변상황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며 실천하고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독특한 생각과 탐색을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라.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중함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마.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외모, 인종, 종교, 성, 연령, 가족구조,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문화 등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02

표준
보육과정의
기본전제**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다.**

모든 영유아는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 발달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차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영유아 개개인이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존중 받을 때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집단 내 영유아 모두 서로 다른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발달적 특성이 질적으로 다르다.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발달해 간다. 인간은 출생 후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측면과 뇌와 신경계 등 생물학적 측면에서 양적, 질적 변화를 거듭해 간다.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손과 발이 점점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양적 변화라면, 혼자 앉다가, 서고 걷고 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출생 후 영유아는 모든 발달 영역에서 세밀하게 분화가 이루어지고 기능이 복잡해진다.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과정에서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나타내므로 영유아의 사고, 느낌, 언어, 신체, 사회적 관계 등이 성인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영유아는 그 자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영유아는 외모, 인종, 종교, 성, 연령, 가족구조,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문화 등에 대한 어떠한 편견 없이 영유아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발달과 학습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 영유아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의미 있는 지식, 기술 및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

영유아기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뿐 아니라 기술,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식이란 생각이나 개념, 아이디어 같은 영유아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신적 내용물이다. 기술이란 자르기, 그리기 등과 같이 분명히 관찰

되는 행동이다. 바람직한 태도는 호기심, 몰입, 열정, 예의 등과 같이 어떤 상황 시 영유아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는 점진적으로 반복 경험되면서 긴 시간을 두고 형성된다. 영유아가 친근한 환경에서 자신의 오감각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영유아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지식 뿐 아니라 기술, 바람직한 태도를 점차 형성해 나간다.

마. 영유아는 일상생활이 편안하고 학습과 경험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최대의 능력이 발휘된다.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은 일상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이전의 발달과 학습은 이후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은 편안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의미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유아가 자신의 현재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에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는 자발적이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반복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즐거움을 영유아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놀이는 영유아의 의미있는 학습과 경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교사 지시적이거나 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중심의 주도적 놀이로 이루어질 때 영유아는 새로운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바. 영유아는 민감하고 반응적인 성인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최적의 발달을 이룬다.

영유아는 부모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와 신뢰롭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사물이나 환경 탐색을 시도하며 또래나 다른 성인과 의 긍정적 관계로 확장해 나간다. 교사가 영유아의 생각이나 행동, 정서, 표현 방식 등을 민감하게 파악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때, 영유아는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가장 잘 형성해 간다.

사. 영유아가 속한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영유아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직간접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성장한다.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신뢰할 때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와 관련 내용을 서로 나눈다. 부모는 가정에서의 영유아 행동이나 습관을 살펴 교사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함께 협력한다.

03

구성방향 및 체계

가. 구성방향

1)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령 및 수준별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를 발달적 특성에 따라 0-1세, 2세, 3-5세의 세 개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 개의 보육과정으로 구성한다.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영아의 발달 상 개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6개월 정도를 한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0-1세 보육과정은 4수준, 2세 보육과정은 2수준으로 보육내용을 구성하였다. 3-5세 보육과정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보육과정은 수준별 및 연령별로 내용이 구분되었으나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다양한 경험은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일과가 편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일상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즉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는 청결과 위생, 적당한 수면과 휴식 및 배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편안하고 안정된 일과를 보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유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교사는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영유아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3)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질서, 배려, 협력 등 실천 위주의 경험을 통해 바른 인성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생활습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반복적으로 경험되도록 한다.

4)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계획해보고 실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독창적이고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데 중점을 둔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성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이 균형있고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쪽에 편중된 경험은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경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조하되, 전 발달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이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한다면 그 결과 미래 사회에는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출발이며,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나. 구성체계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교사의 지원과 환경구성에서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으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포함)으로 구성한다. 연령집단 구분과 연령집단별 수준 구분 체계는 종전의 표준보육과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3-5세 보육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3-5세 누리과정을 그대로 포함한다. 0-1세 보육과정은 2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과 서로 연계하여 구성한다.

2)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으로 구분하고, 내용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의 각 보육과정은 보육내용이 영역, 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은 수많은 세부 보육 내용 중 비슷한 것들을 묶은 것이고, 내용범주는 비슷한 내용을 다시 묶어 제시한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과 내용범주들은 영유아에게 통합적으로 경험되도록 해야 한다.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에서는 내용범주가 18개이고 3-5세 보육과정의 내용범주는 20개이며 서로 연계가 이루어진다. 각 보육과정에서 세부내용은 0-5세까지 서로 연계가 되며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구성한다.

3) 세부내용이라 함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세부내용을 의미하고 3-5세 보육과정에서는 연령별 세부내용을 의미한다.

0-1세 및 2세 보육과정에서 수준별 세부내용의 수준이란 연령, 발달, 개인차를 포함하는 의미로 한 수준은 6개월 정도의 단위이다. 따라서 0-1세 보육과정은 4수준, 2세 보육과정은 2수준으로 세부내용을 구분한다. 3-5세 보육과정은 연령별로 세부내용을 구분한다.

4) 0-1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0-1세 보육과정은 총 6개 영역으로 보육 내용을 구성한다.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범주는 2개가 있으며 5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운동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이 10개이며, 의사소통 영역은 내용범주가 4개, 내용이 9개이고, 사회관계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 내용이 8개이며, 예술경험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 내용이 6개이고, 자연탐구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 내용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하면 0-1세 보육과정의 내용범주는 총 18개이고, 내용은 총 48개로 구성되어 있다.

5)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세 보육과정은 총 6개 영역으로 보육 내용을 구성한다.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범주는 2개이고 내용은 7개이며, 신체운동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은 10개이다. 의사소통 영역은 내용범주가 4개이고 내용은 9개이며, 사회관계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은 8개이며, 예술경험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이 6개, 자연탐구 영역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이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2세 보육과정의 내용범주는 총 18개이고 내용은 51개로 되어 있다.

6) 3-5세 보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5세 보육과정은 총 5개 영역으로 보육 내용을 구성한다. 0-1세와 2세 보육과정의 영역 중 기본생활 영역과 신체운동 영역을 통합하여 3-5세 보육과정에서는 이를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하였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범주는 5개이고 내용은 3-5세 모두 14개이며,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범주는 4개이고 내용은 3세가 10개, 4-5세가 11개이고, 사회관계 영역은 내용범주가 5개이고 내용은 3세가 11개, 4-5세가 12개이다. 예술경험은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이 3-5세 모두 10개이며, 자연탐구는 내용범주가 3개이고 내용이 만 3세가 11개 4-5세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3-5세 보육과정의 내용범주는 총 20개이고 내용은 3세가 56개, 4-5세 모두 59개로 되어 있다.

7) 3-5세 보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5세 보육과정 중 5세 연령에 해당하는 목표와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내용과 논리적으로 위계를 가지며 용어 통일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 목적과 목표

01

목적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0-5세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0-1세 보육과정에서는 영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의 여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2세 보육과정에서는 영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의 여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한편 3-5세 보육과정에서는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의 목표는 서로 연계되어 위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02

목표

가. 0-1세 보육과정

1)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식사, 수면, 휴식, 배변, 놀이 등의 기본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성장기 이후까지 지속될 기본생활습관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이므로 영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먹고 잠자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신의 감각경험을 통해 신체를 탐색하고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감각 능력과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다양한 감각으로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환경 및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인식하고 신체운동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의 감각과 신체를 인식하고 대소근육을 조절 및 기본운동을 시도하며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즐기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감각기관과 신체를 이용하여 탐색하고 신체를 조절해보며 신체 활동을 시도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말소리를 구분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말하고 듣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웅얼이로 말소리를 만들어 내며 상대와 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그림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아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듣기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정과 몸짓 및 말소리로 표현하며, 짧은 그림책이나 친숙한 인쇄물에 관심을 갖

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임을 알고, 주 양육자, 가족, 또래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주변 환경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며, 타인과 함께 생활 경험을 통해 평생 동안 지속될 사회관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영아가 자신을 인식하고 감정을 나타낼 줄 알며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과 태도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친숙한 자연과 사물 및 주변 환경의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즐겁으로써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친근한 소리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감성발달과 창의적인 표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가 주변 환경의 소리나 움직임, 색 모양 등에 호기심을 가지며 예술적 요소를 경험하며 즐기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6)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0-1세 보육과정은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기며 일상생활 속 경험을 통하여 수학적·과학적 기초를 지각해 보는 경험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주변세계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개인적 의미를 구성해가는 탐색 수준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영아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탐색해나가는 데 중점을 둔다.

나. 2세 보육과정

1)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다.

2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청결, 식습관, 수면, 휴식, 배변, 놀이, 교통안전 등의 기본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성장기 이후까지 지속될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씻기, 입기 등의 경험을 스스로 시도하고, 바른 식습관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하게 놀이하며 교통안전에 대해 경험해 봄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2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탐색하고 대소근육을 조절해보며 감각 능력과 신체 조절 및 기본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신체움직임에 대해 인식해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다 안정된 신체 균형감과 신체 조절능력 및 기본운동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조절하며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2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기초적인 어휘와 의사소통 체제를 습득한 후 구어와 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조음능력, 어휘력, 문장구성 등 언어발달이 급진적으로 향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하며 영아가 좋아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상징, 기호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아가 성인과 자주 대화를 교환하며 질문을 하는 것을 즐기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다 점차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익숙한 환경 인체물의 그림과 내

용을 읽어보도록 하며 의도를 가지고 끼적이는 경험을 통해 기초적인 구어능력과 문어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2세 보육과정은 자신을 알고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사회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자신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보이며 가족, 또래, 자신이 속한 집단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가치를 익혀나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영아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이나 또래 등 친숙한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2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자기 주변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소리, 노래, 움직임, 미술활동, 상상놀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기초적인 감성과 창의성 발달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며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므로 향후 창의성 발달에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 환경에 대하여 단순한 관심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고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즐기는 경험을 하는 데 중점을 둔다.

6)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

2세 보육과정은 주변 환경의 특성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기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과학적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가 호기심 가지고 궁금한 것을 탐색하는 경험은 이후에 수학적, 과학적 사고와 탐구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

적으로 탐색하며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수량이나 공간에 관심을 갖고 물체와 물질 및 동식물들을 능동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수학적·과학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3-5세 보육과정

1)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3-5세 보육과정은 유아가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며,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은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아기는 평생 동안 지속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3-5세 보육과정은 유아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익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어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유아기에 다양한 놀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언어를 습득하고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아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인이 정확한 발음과 언어 표현의 모범을 보여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5세 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생활

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생활하는 능력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첨단 통신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바람직한 사회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능과 태도를 익혀 건전한 사회·정서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4)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3-5세 보육과정은 유아가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즐기는 태도를 형성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주변의 자연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다양한 소리, 악기, 여러 가지 재료, 신체 등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극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미감, 지각능력, 상상력, 표현력, 감성, 정서 조절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유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관심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5)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3-5세 보육과정은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생활 경험을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선천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관찰, 분류, 실험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

는 등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타고난 호기심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격려하여 유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아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며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여 탐구하는 태도와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III | 편성과 운영

01

편성

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보육과정의 편성은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과정을 개별 어린이집 수준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종일제를 기반으로 하며 개별 어린이집의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영유아가 편안하고 즐겁게 보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휴식과 낮잠, 바깥놀이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보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영유아가 다양한 보육영역의 내용을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성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이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표준보육과정의 세부내용을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가 즐기며 좋아한다는 이유나 보호자의 특정한 요구 또는 어린이집의 형편에만 치우쳐 편중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개인차,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차 뿐 아니라 동일 연령 내에서의 개인차와 사전 경험을 반드시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보

육과정에서 수준별,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 흥미, 요구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영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가면서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세부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보육활동은 교사주도적인 활동의 형태로 전달되기보다는 영유아의 흥미와 자발적 선택을 우선하여야 하며 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영·유아의 일과 중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은 놀이 활동 뿐 아니라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서도 의미있게 전개되도록 한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은 급·간식, 배변, 낮잠, 휴식 등 영유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한다. 일상생활관련 경험은 매일의 일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보육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추어 적합하게 운영한다.

마. 어린이집과 보육실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가령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아 보육실을 연령별로 구성하지 않고 연령 통합반으로 운영할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경우, 어린이집이 농촌에 위치해 있어 영유아들의 등원 거리가 먼 경우 등, 어린이집마다 기관 고유의 특성과 이에 따른 요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요구를 보육과정의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보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영유아의 성별, 종교적 배경, 신체적 특성, 가족 환경이나 민족 배경 등을 인정하여 영유아 각자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장애 영유아의 경우, 일반 영유아들이 가지는 발달적 요

구 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요구가 있으므로 일반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는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편견 없이 보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다.

02

운영

가. 보육계획(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등)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된 계획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한다. 연간보육계획은 일 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실행해야 할 보육목표와 보육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월간보육계획은 해당 주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이자 전반적인 활동의 목록을 포함한다. 주간 보육계획은 교사가 선정한 활동을 요일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으로 보육과정의 각 영역별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일일 보육계획은 개별 영유아의 수준, 영유아가 전날 보였던 반응, 당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교사가 활동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육계획안에 기초하여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영아반의 보육계획의 경우 해당 주제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영아들이 자신의 흥미와 발달 속도에 맞추어 충분히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사는 실내·외 공간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영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한다. 보육실은 영유아가 하루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보육과정 운영과 직결된 공간이므로 다양한 흥미 영역을 구성한다. 흥미영역의 종류와 수는 영유아의 연령과 보육실 크기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영아반의 경우는 수유, 낮잠 등 일상생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할놀이 영역, 쌓기 놀이영역, 수과학영역, 언어영역, 미술영역, 음률 영역 등 다양한 흥미영역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도 다양한 흥미영역을 배치하여 매일 다양한 놀이가

진행되도록 한다. 실외 환경은 실내 환경처럼 흥미영역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우나 이동이 가능한 기구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실내 외 공간에 배치된 흥미영역은 영유아의 요구나 계절 및 주제 등에 따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계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다. 영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교사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서 영유아의 개별 능력과 장애정도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영유아 시기는 개개인마다 발달적인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교사는 보육과정 운영 시 영유아의 연령차, 개인차, 개인 내에서 나타나는 발달영역 간의 편차 등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보육과정의 보육내용을 참고하여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적절히 차별화시켜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격려하며 영유아가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장애 영유아의 개별화 보육계획을 수립한 후 발달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활동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장애아 통합반 상황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배려하여 보육환경과 활동자료를 제공하며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보육 내용을 구성하고, 장애 영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수·학습방법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부모가 적절한 부모 역할 및 영유아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기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부모교육은 보육과정의 실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연락장이나 편지,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 대·소집단 모임, 보육실 참관과 면담, 자원봉사 활동, 부모참여수업,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의 여건과 환경, 반의 연령 구성,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한다. 그리고 보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 일과, 교사 구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보육 활동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육 목표와 내용을 가정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취미 및 특기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보육과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교사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여 보육 활동에 적절히 반영하며 역사적 유적지나 산업시설, 문화시설, 복지기관 및 대학과 같은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및 보육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기관 정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해간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보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다음의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보육과정 운영은 교사재교육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계획과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협의회, 현장 연구, 보육실 관찰, 보육계획안 평가 등 어린이집 자체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유아 발달 및 보육에 관한 직무 연수 및 승급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일반교사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유아특수 교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도록 재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보육정보센터나 한국보육진흥원 등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연수 및 워크숍,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해야 한다.



03

교수·학습
방법**가.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유아는 주도적인 놀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하고 즐거움과 자발성을 토대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영유아의 놀이는 탐색에서 시작되므로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은 탐색과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주도적인 놀이란 영유아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며 충분한 시간동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유아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일상과 자유놀이를 중요한 학습과정으로 인식하고 영유아의 다양한 탐색과 놀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참여와 개입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교사주도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영유아가 놀이에 몰입하여 학습하고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이다.

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의 활동은 영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유아는 흥미 있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영유아가 보이는 관심과 흥미에는 발달차이 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존재한다. 교사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준비함으로써 영유아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영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영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식, 기술,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 영유아가 배워나가는 지식, 기술, 바람직한 태도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의미있는 내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교사는 간식을 먹을 때 수를 세어보기,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워 보기, 이동 시 안전하게 움직이기 등 일과 중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상황을 포착하고 적절히 개입하여 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이루어진 영유아의 경험이

적합한 학습 경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 개인의 생활 속 경험을 이해하고 동시에 영유아가 습득해야 할 지식, 기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라. 교사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개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유아 그 자체를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는 영유아가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영유아를 존중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에는 언어적 상호작용 외에도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하루 일과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은 교사가 영유아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 개인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개별 활동은 영유아의 발달차이 뿐만 아니라 기질, 경험의 내용과 범위, 관심사, 학습 능력, 가정 문화 등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별 영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놀이 및 활동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유아와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교사, 환경, 또래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유아는 교사나 또래, 교구나 자연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상호작용의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교사, 환경,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놀이 및 활동, 환경을 지원하고 이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사전 경험, 발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적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영유아의 이전 경험과 현재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가 상호작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유아는 보육 내용을 분절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경험으로 배우는 것

이 중요하다. 주제중심의 통합은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 학습에 적합하되 자주 접했던 친근한 주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보육 내용 영역과 관련지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 활동들은 서로 연관됨으로써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영아의 경우 영역 별 활동이 반복되고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주제 전개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영유아의 반응과 흥미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의미 있는 학습과정이 되도록 한다.

사. 만 0-1세아, 만 2세아는 일상생활 및 개별 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아의 급·간식, 배변, 씻기 등의 일상생활과 개별 활동, 휴식 등은 영아의 신체적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배치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활동은 매일의 일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영아의 발달특성에 맞추고 개별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관련 내용들이 적절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 영아와 함께하는 모든 놀이 및 활동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집단 활동이 아니라 개별 활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를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운영할 경우 영아에게 부적합한 내용(예: 주의집중을 요구하기, 놀잇감 양보하기, 조용히 걸어 다니기 등)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영아의 발달에 부적합하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휴식은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리듬에 맞추어 융통적으로 조절한다.

아. 만 3-5세아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 활동, 일상생활 및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5세 유아의 하루 일과는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휴식 등을 고르게 안배하도록 한다. 보육실 외의 바깥 공간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실외 활동을 매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활동성이 적은 정적인 활동과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별 활동

과 대·소집단 활동도 유아의 연령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실시한다.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발달 특성상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반이 구성되었을 때는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 및 휴식은 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적합한 일과 구성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사나 기관의 요구를 중심으로 유아의 일과를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04

평가

가 운영평가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보육내용이 적절히 편성·운영되는지 평가한다.

국가 수준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들이 연령별로 경험해야 할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연령에 따라 5개 혹은 6개 영역의 표준보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각 반에 맞게 일 년의 계획을 편성하고, 편성된 내용에 근거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내용이 표준보육과정의 편성·운영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연령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5개 혹은 6개 영역의 세부 내용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내에서 균형 있고 고루 경험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연간 계획에서 일일 계획까지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편적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내용에 근거하여 개별 반의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기관의 지역적 특성 뿐 아니라 각 반 내 영유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

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간의 차이가 있고 기질, 학습속도,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경험, 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영유아 간에 서로 다르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개인차나 경험 및 능력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안에 따라 운영할 때도 개별 영유아가 모두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영유아 수준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차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영·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요구에 적합한 경험 및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이 계획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된 활동의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을 다르게 선택, 적용해야 한다.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설명으로 하였는지, 실험을 하였는지, 또래와 함께 토론으로 하였는지 등 경험 방법에 따라 영유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몰입 정도는 달라진다. 영유아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활동 참여를 흥미로워하고 즐겁게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 요구에 적합하며 영유아의 사전 경험과 연결된 활동을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경험하게 했는지를 평가한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한 놀이는 영유아의 학습과 경험을 의미 있게 이끄는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주도의 대집단 활동이나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정리정돈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실내·외 활동 등도 일과 중에 균형 있게 안배하고 각 활동에서 필요한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활동을 진행할 때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4) 일과 운영 및 보육활동 구성 시 놀이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의 양과 내용이 영아 및 유아 각 연령의 발달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서 보육계획안 내용을 분석한다. 즉 계획안에 표준보육과정의 5개 혹은 6개 영역 내용이 포괄적으로 고루 포함되었는지,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일과 운영 및 보육활동 구성 시 놀이 중심의 활동과 일상생활의 양과 내용이 영유아 각 연령의 발달에 적합

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평가한다. 하루일과를 크게 구분할 때 일상생활과 놀이 중심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생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놀이 중심의 활동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놀이와 일상생활이 각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에 적합한 활동들로 제공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만 0-1세아, 만 2세아는 집단 활동보다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지를 평가한다.

유아와 달리 영아는 발달의 개인차가 크므로 대집단활동을 영아반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0-1세아, 2세아 반에서는 집단 활동보다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지를 평가한다. 보육계획안을 분석하고 계획안과 실시된 보육일지를 비교 분석하여 영아의 흥미와 요구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교수법이 잘 실시되었는지 평가한다. 수업 참관을 통해 계획된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영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교수법이 영아에게 적절했는지, 상호작용 정도가 우수한지 등을 관찰하고 자신의 상호작용 방식과 교수법을 스스로 평가해 보거나 동료나 선배 교사로부터 평가 내용을 들어본다. 교사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수준이나 질문 유형, 활동 진행 과정 등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교수법에 대해 진단하고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들에게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공신력 있는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6)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보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지 평가한다.

교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며, 실행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은 영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이끌고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운영 계획을 융통성있게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 해의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나. 영·유아평가

1)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영유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개별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영유아를 평가할 때에는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되, 성취중심의 결과 평가보다는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영유아가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나 태도를 보이고, 개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를 부모에게 알려서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보육 내용을 계획하도록 한다.

2)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도와 행복을 도모하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세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과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이를 경험한 영유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할 때 세부적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일상생활과 보육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영유아는 다양하게 편성된 하루 일과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영유아의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평가 또

한 보육 장면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활동, 급간식 및 정리정돈, 등원 및 귀가 등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든 일상생활과 실내외 놀이와 활동을 고르게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또한 관찰을 할 때에는 해당 반의 모든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한다.

4)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영유아를 평가할 때에는 여러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하루일과에서 영유아가 참여한 놀이 행동이나 나눈 대화, 활동 과정 및 몰입 정도,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 관찰 가능한 여러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영유아를 평가한다. 또한 영유아가 참여한 놀이나 활동에서 영유아가 만든 활동물, 언어나 음률 활동 동영상, 쌓기 구조물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찰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영유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부모와의 주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기관에서 관찰하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영유아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해 둔다.

5) 평가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한다.

영유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표준보육과정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 평가를 기초로 개별적인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영유아가 균형있게 성장·발달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어린이집과 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자료로 활용하여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일관성있게 지도하여 어린이집이 가정과 연계하여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도록 한다.

03

0-1세 보육과정 각론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I | 기본생활

01

성격

기본생활 영역은 편안한 수면 및 휴식, 수유 및 건강한 식사 등 영아가 생활에 필요한 건강한 일상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주변의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는 등 안전한 일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영역이다.

영아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위생과 청결을 점진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고 즐겁게 식생활을 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을 교사가 알려주면 이에 반응하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가 스스로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습관을 기르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의 경험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생활 영역은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두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범주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출생 이후 여러 가지 청결과 위생 관련 경험을 조금씩 해 나가고, 즐겁게 식사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편안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배변 경험 등을 통해 건강한 생애 첫 일상을 경험하도록 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출생 후 24개월까지의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며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초를 경험하도록 한다.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출생 후부터 영아가 규칙적인 일과를 경험하며 편안하게 느끼고 건강한 일상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놀이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02

목표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는 청결, 식습관, 수면, 휴식, 배변, 놀이 등의 기본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나. 안전한 생활을 경험한다.

영아기는 평생 동안 지속될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는 것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영아는 출생 후 몸의 청결과 위생, 즐거운 수유, 이유, 식사, 충분한 수면과 휴식 및 배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발달할 때 일과에 잘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다. 건강은 신체적인 질병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아기의 건강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교사는 영아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영아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 따라서 영아가 청결과 위생, 즐거운 식생활, 수면과 휴식 등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안전한 생활을 경험한다.

영아는 호기심이 많고 움직임이 많은 반면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입기 쉽다. 특히 질식사, 화상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은 영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는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영아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영아

에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가 위험하다는 말을 알아듣고 주의하도록 돕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과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기본생활 영역은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두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몸을 깨끗이 하기, 즐겁게 먹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를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안전하게 지내기,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를 통해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범주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깨끗이 하기 • 즐겁게 먹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지내기 •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건강하게 생활하기

가) 몸을 깨끗이 하기

‘몸을 깨끗이 하기’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영아가 몸이 깨끗할 때의 기분 좋음을 알고 도움을 받아 손을 씻고 이를 닦는 경험을 하게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을 깨끗이 하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는 영아가 청결한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는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는 영아를 씻겨주고 닦아 줄 때 영아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다’는 영아가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다. 교사는 수유, 식사 전후, 놀이가 끝났을 때, 배변 후에 영아의 손이나 몸을 씻겨 주거나 영아 스스로 씻도록 도와준다.

‘도움을 받아 이를 닦는다’는 치아 건강을 위해 식사 후에 영아가 도움을 받아 이를 닦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치아가 완전히 나지 않아 구강위생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구강위생을 소홀히 하면 각종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아가 이 닦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닦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나) 즐겁게 먹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즐겁게 먹기	편안하게 안겨서 우유(모유)를 먹는다.	이유식에 적응한다.	고형식에 적응한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다.
	도구로 음식을 먹어 본다.			
	즐겁게 먹는다.			

‘즐겁게 먹기’는 영아가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우유(모유)에서 시작하여 이유식, 고형식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원만하게 겪도록 도와주는 내용이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여 먹는 것을 연습해보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편안하게 안겨서 우유(모유)를 먹는다’는 영아가 편안한 상태로 우유(모유)

를 먹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아를 안고 미소를 짓거나 부드럽게 말을 거는 등 느긋한 기분으로 수유하고 영아의 먹는 속도에 맞추어 먹이도록 한다. 수유 과정에서는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식에 적응한다**’는 영아가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므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음식을 골고루 접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유나 우유 이외의 음식 맛을 알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고형식에 적응한다**’는 영아가 이유식에 적응하면 점차 고형식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음식에 적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영아가 15~18개월경이 되면 대부분 이유기가 완료되고 식성도 뚜렷해진다. 이 때 영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므로 점차 성인이 먹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다**’는 고형식에 적응한 영아가 다양한 성인 음식에 적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주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에 익숙해지도록 자주 제공하며, 다양한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기호를 갖게 한다. 이 때 영아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알려준다.

‘**도구로 음식을 먹어 본다**’는 수저와 식기 등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도록 연습하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수저와 식기, 식탁을 사용하게 되고 여럿이 어울려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기본적인 식사예절을 지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즐겁게 먹는다**’는 먹는 일을 인생의 즐거운 경험 중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영아가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대인관계의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사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영아에게는 처음 음식을 줄 때 양을 약간 적게 제공하고 영아가 원하면 더 주도록 하며, 영아가 음식을 거절하면 강요하지 않는다. 영아가 식사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제는 되도록 적게 하되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다)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수면, 휴식, 놀이,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편안하게 쉰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는 영아의 경우 수면이 일상생활 중 매우 중요하므로 충분하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생아는 수유시간 이외에는 밤과 낮 구분 없이 잠자기와 깨어있기를 반복한다.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낮 동안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아가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락하고 조용한 수면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수면시간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영아 개인차에 따라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편안하게 쉰다’는 하루의 일과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수면 시간 외에도 편안하게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활동량이 많고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일과 중에 쌓인 피로를 휴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영아들의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을 존중해서 영아 각자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한다’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영아가 가정에서 처럼 편안하게 참여하게 하는 내용이다. 보육실은 영아의 생활 장소이며, 동시에 놀이의 장이기도 하다. 교사는 영아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영아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늘 관찰해야 한다. 교사는 부드러운 말씨와 표정으로 영아를 대하며, 영아가 편안하고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편안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는 배변 훈련을 하기 전 단계로 영아가 대소변의 마려움을 인식하고 배변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의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영아 개개인의 배변 간격을 파악하며, 영아의 울음소리

와 불편해 하는 표시, 배변하고자 하는 욕구 표현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아가 배변 의사를 보이면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여 배변 의사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배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배변 훈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2) 안전하게 생활하기

가) 안전하게 지내기

‘안전하게 지내기’는 영아가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고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며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안전하게 지내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한다’는 영아가 생활하는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영아가 놀잇감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세 미만의 영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물건을 삼키는 등 이물질 흡입에 의한 질식사 사고가 많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독성이 없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가 놀잇감을 안전하게 탐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는 영아가 실내외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미리 제거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 승하차 시 안전 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집 등하원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영아가 가정에서도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교통안전에 중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나)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영아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보인다’는 영아가 위험하다는 말을 알아듣고 이에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2세 미만 영아는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열의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면 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가 위험하다고 말해주면 영아는 이를 알아듣고 행동을 멈추거나 조심하는 등 반응을 보이도록 지도한다.

‘위험하다고 알려주면 주의한다’는 영아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영아가 이를 피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장소를 인식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위험한 것이 무엇이며 위험한 물건과 위험한 장소에 대해 알게 해서, 영아가 함부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고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Ⅱ | 신체운동

01

성격

신체운동 영역은 출생 후 영아가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신체를 탐색하고 대소근육을 발달해 가며 0-1세에 적합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감각능력과 기본적인 신체운동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영아의 감각과 신체인식은 신체운동 능력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 영아는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므로 영아의 감각과 신체인식의 기초 능력은 중요하다. 영아는 오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 영아의 감각 운동능력은 영아와 환경을 연결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된다. 또한 0-1세 영아는 걷기 등 신체 균형감의 기초적인 발달과 대소근육의 조절을 포함한 기본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는 신체의 균형을 잡고 대소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신체조절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만지고, 두드리고, 던지며 노는 가운데 눈과 손의 협응 능력과 조작능력의 발달을 꾀하면서 기본운동능력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신체운동 영역은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감각활동 경험 및 대소근육 조절과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의 시도를 통해 감각과 신체조절 능력 및 기본운동능력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한다.

신체운동 영역에서는 영아가 신체운동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체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운동 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목표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는 영아의 감각 능력과 신체운동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감각 및 기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른다.

- 가.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탐색한다.
- 나.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걷기 등의 능력을 기른다.
- 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영아기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각으로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탐색하면서 환경 및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신체 균형감, 신체 조절능력, 그리고 이동운동과 제자리 운동능력을 포함한 기본운동 능력과 기초체력의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신체 조절능력을 기르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신체를 탐색한다.

영아기(만 0-1세)는 감각능력을 기르고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탐색해 보는 시기이다. 감각능력과 감각기관의 활용능력은 영아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으로서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아는 감각기능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인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사물과 주변 세계를 인식하며,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여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즐겁게 탐색해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걷기 등의 능력을 기른다.

영아기(만 0-1세)는 신체를 조절하고 균형감을 기르며, 기본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영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기본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을 기르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의 기초체력이란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운동 기능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발달되며, 이후 성인기가 지 지속되는 체력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아가 다양한 신체운동 활동을 통해 신체의 균형감과 대소근육의 조절 능력을 기르고 이동운동 및 제자리 운동의 기본운동을 시도해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영아기(만 0-1세)는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 탐색과 신체 움직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신체활동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영아는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아가 단순한 몸 움직임이나 발달 수준에 맞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을 시도해보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신체운동 영역에서는 영아가 자신의 감각능력과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의 균형감과 조절력을 기르고 기본운동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는 영아가 다양한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고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의 신체와 신체 움직임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는 영아가 신체를 움직일 때 안정적인 신체 균형감을 기르고, 대근육과 소근육의 조절력을 키워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화시키며 움직이는 이동운동이나 제자리에서 다양한 동작으로 움직여보는 운동을 통해 기본운동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는 영아가 실내외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보는 활동을 즐기고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

의 즐거움을 느끼고 규칙적이며 자발적인 신체 운동 습관의 기초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범주	내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 신체 탐색하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균형잡기 • 대근육 조절하기 • 소근육 조절하기 •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움직임 즐기기 • 바깥에서 신체 움직이기 •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는 영아가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자극을 느껴보고 이러한 다양한 자극에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느낀다**’는 영아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각을 통한 다양한 감각경험을 통해 뇌세포의 발달을 증진 시키고 미숙했던 감각기능의 발달을 촉진하고 돕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영아는 점차 좀 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느끼고 이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에 반응한다**’는 영아가 일차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의 지각적 자극을 통해 주변의 사물

과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반응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감각적 자극을 제공할 때는 영아가 관심을 보이고 반응할 때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자극을 한꺼번에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 영아는 감각을 느끼고 이에 대해 반응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나)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감각기관으로 탐색하기’는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주변의 환경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자극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다) 신체 탐색하기

‘신체 탐색하기’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와 신체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킬 수 있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신체 탐색하기	손과 발 등을 바라보며 탐색한다.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손과 발 등을 바라보며 탐색한다’는 영아가 자신의 손이나 발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탐색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을 구분하고 자기 신체의 인식을 돕는 내용이다. 생후 약 6개월 이하의 영아는 자신의 몸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몸 자체가 좋은 놀잇감이 된다. 이에 영아는 손, 발 등의 자기 신체를 입에 넣어보거나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과 환경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팔 다리 등 주요 신체 부분의 움직임을 느끼고 탐색하면서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얼굴, 몸 등을 거울로 보면서 자신의 신체부분을 탐색하고 자기 인식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움직여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한 신체상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2)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가) 신체 균형잡기

‘신체 균형잡기’는 영아가 신체의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되게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근육과 신경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머리부터 발쪽으로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앉기, 서기 등의 자세를 차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신체균형잡기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한다.	불잡고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취한다.	안정되게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시도한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한다’는 영아가 누워서 몸의 균형을 잡거나 고개를 들거나 몸을 뒤집는 등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시도하는 내용이다. 생후 6개월까지의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게 되나, 뒤집거나 엎드려서 고개를 들거나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등의 자세를 취하면서 몸의 균형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불잡고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취한다’는 영아가 근육 및 신경조직의 발달을 토대로 몸의 상부로부터 하부로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잡고 서있으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생후 7~8개월 정도 되면 앉아서 중심을 잡고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생후 9~10개월에는 가구 등을 불잡고 서 있을 수 있다.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 발 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를 시도할 수 있으며, 불잡고 서있기 등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동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안정되게 서 있기 등의 자세를 시도한다’는 영아가 안정된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신체 균형 능력의 활성화를 돕는 내용이다. 첫돌 이후의 영아는 혼자 잘 서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제자리에 서서 어떤 동작을 따라 하게 하면서 선 자세에서 균형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영아가 여러 가지 동작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팔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균형감에 초점을 둔다.

나) 대근육 조절하기

‘대근육 조절하기’는 영아가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 등의 대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몸을 가누고 자세를 바꾸는 등 기초적인 신체움직임을 통해 대근육을 조절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대근육 조절하기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누웠다 앉기 등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는 영아가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움직여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대근육 조절능력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근육과 신경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원시적인 반사는 사라지고 스스로 신체를 조절해 가기 시작한다.

‘누웠다 앉기 등 몸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누웠다 앉기 등 보다 다양한 신체 움직임에서 대근육의 조절을 돕는 내용이다.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발달해 간다. 신체발달은 머리에서 발쪽으로 이루어지므로 몸의 조절능력도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서기의 순으로 발달한다.

다) 소근육 조절하기

‘소근육 조절하기’는 손으로 잡기, 놓기 등의 동작을 하면서 굴근을 발달시키고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키워주는 내용이다. 영아는 손에 물체를 쥐어보고 잡아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하여 소근육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소근육 조절하기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는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활용해 본다.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는다’는 영아가 쥐어주는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어 봄으로써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는 점차 눈에 보이는 물체에 스스로 손을 뻗어 봄으로써 눈과 손이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소근육 조절 능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영아는 생후 1개월경이면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잠시 동안 쫓을 수 있고, 생후 4개월경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서 쳐다 볼 수 있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물체를 쳐다보고 팔을 뻗는다. 3~5개월에 눈으로 사물을 확인하고 손을 뻗어 물체를 잡으려는 행동을 하는 등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딸랑이 등 놀잇감을 잡고 있는 것은 아직 어렵다. 생후 5개월경이면 눈과 손의 협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므로 교사는 영아가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물체를 놓고 영아의 관심을 유도하여 다양한 물체를 잡아볼 수 있게 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활용해 본다’는 영아가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 및 시각 발달을 토대로 눈과 손이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소근육의 활용을 돕는 내용이다. 생후 7개월경의 영아는 팔을 뻗어 관심 있는 물체를 잡을 수 있고, 생후 9개월경이면 한 손으로 물건을 조작하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건을 잡기를 시작한다. 생후 1년을 전후한 시기에 영아는 눈과 손, 눈과 발 등 감각기관의 협응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생후 19~24개월경에는 구멍에 끈을 끼울 수 있을 만큼의 소근육 활용능력을 키우게 된다.

라) 기본운동하기

‘기본운동하기’는 영아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배밀이, 기기, 걷기 등의 이동운동과 제자리에서 몸을 축으로 하여 장소를 옮기지 않고 움직여 보는 뻗기, 흔들기 등의 제자리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개인별로 신체 발달과 성장에 따라 기본 운동 능력의 토대가 다르므로 각자의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이동운동과 제자리에서의 움직임 활동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기본운동하기	배밀이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기기,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	
	팔 다리 뻗기, 흔들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서 있기, 앉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배밀이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초보적인 형태의 이동운동인 배밀이 등의 시도를 돕는 내용이다. 이 시기 영아가 배밀이를 시작하려 하면 영아 앞에 관심 있는 물건을 놓아 주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북돋워준다. 처음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가거나 한 자리에서 뱅글 뱅글 돌기도 하나 연습을 통해 차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기기,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기고 걷는 등의 이동운동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목을 가누고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생후 6개월 이후가 되면 교사는 영아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세우는 연습을 해서 차츰 다리의 힘을 기르도록 한다. 생후 7개월 정도면 영아를 붙잡고 바닥에 세웠을 때 온몸의 체중을 발에 실을 수 있다. 생후 10~11개월경부터 영아는 팔과 다리로 기기 시작하며 소파나 의자 같은 가구나 물체를 붙잡고 걷는 등 이동운동을 한다. 가구를 붙잡고 걸을 정도가 되면 교사의 발등 위에 영아를 세워놓고 같이 걸어 보거나 영아의 손을 잡고 걸음마 연습을 시도해 보면서 즐거운 놀이처럼 느낄 수 있게 한다. 걸음마를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 혼자 서기에서 한 걸음씩 떼려는 영아의 시도에는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해 준다.

‘걷기 등 이동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보다 능숙하게 걷기 등의 이동능력을 발달시키는 내용이다. 생후 13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영아들이 혼자서 걸을 수 있으나 처음에는 팔을 뻗고 뒤통거리는 걸음에서 시작한다. 생후 15개월경이면 영아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으며, 생후 16~17개월이 되면 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걷기에 능숙해진다. 그러나 아직은 모서리를 따라서 걷거나 갑자기 정지하지는 못한다. 생후 18개월이면 계단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고, 한 손을 잡아 주면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된다. 영아

가 걷기 시작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거나 약간 떨어진 곳에 놀잇감을 놓아둔다. 걷다가 서기, 그리고 다시 걷기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있는 영아를 뒤에서 불러 방향을 전환하도록 격려한다.

‘팔 다리 뻗기, 흔들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점차 팔다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원하는 방향이나 물체를 향해 팔을 뻗거나 누워서 발에 닿는 물체를 발로 차거나 흔들기 등의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시도해 보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의 제자리 운동은 신체조절 능력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조절하여 균형감이 생기면 동요나 좋아하는 노래, 음악 등을 듣고 몸을 리듬감있게 흔드는 등의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

‘서 있기, 앉기 등 제자리 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거나 의자에 앉기 등의 제자리 운동을 시도해 보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 시기 영아의 제자리 운동은 관절의 자극과 내이의 전정기관의 자극으로 하지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는 신체 유연성을 키워 주며 신체 움직임을 즐거운 활동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영아는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서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3)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가) 몸 움직임 즐기기

‘몸 움직임 즐기기’는 영아가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이다. 영아기의 신체활동은 영아의 신체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 움직임 즐기기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는 영아가 자신의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 봄으로써 환경과 구분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돕고 몸의 움직임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0세 영아는 신체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

면서 교사 및 양육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시도한다**’는 영아가 신체균형감 및 신체 조절능력의 발달을 토대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일과 중에 잡기 놀이, 쌓기 놀이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놀이로써 인식하면서 즐겁게 활동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영아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구성해 본다. 교사는 영아의 활동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개별적인 발달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나) 바깥에서 신체 움직이기

‘**바깥에서 신체 움직이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영아는 바깥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보다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실내와는 다른 환경의 차이를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바깥에서 신체 움직이기	규칙적으로 바깥환경을 경험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환경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에 나가 바깥 환경을 경험해 보는 내용이다. 아직 혼자 걷기가 미숙한 영아라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바깥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실내외환경의 차이를 느끼고 적극적인 실외 놀이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는 영아가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대근육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1세 영아가 매일 규칙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마음껏 바깥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여 신체 기능의 원활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영아는 바깥활동을 통해 걷기, 기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기구를 타며 이동하기 등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혼자서 혹은 또래와 함께 즐기게 된다. 바깥놀이 활동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인근 놀이터나 공원, 지역사회 시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는 영아가 발달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내용이다. 영아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서 대근육 운동능력을 기르고, 기구를 활용하면서 거리, 높이, 빠르기에 대한 감각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신체 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시도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시도하기’는 영아가 걸음마 연습용 기구, 유모차, 흔들말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해봄으로써 신체 균형력, 대 근육조절력, 근력, 근지구력 등 기초체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이용하는 기구는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하며,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III | 의사소통

01

성격

의사소통 영역은 출생 후 첫 울음, 웅얼이 등의 소리나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를 타인에게 전달하다가 점차 한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영역이다.

만 0-1세 영아는 웅얼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점차 고개 젓기 등의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 향상된다. 이 시기의 영아는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표정과 어투로 말을 거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성인의 말을 모방하기도 한다. 생후 12개월경에는 처음으로 첫 단어가 나타나며, 이후 24개월까지 약 200-300개의 어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여 불완전하지만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요구나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처럼 만 0-1세 영아는 말하고 듣는 기초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성인이 읽어주는 그림책과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쓰기 자료가 주어질 경우 끼적이기에 관심을 보인다.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개월 이전까지 영아의 듣기와 말하기는 급격한 발달을 이루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다. 읽기와 쓰기는 0-1세 영아가 주변의 친숙한 환경에서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과의 첫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끼적이기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신뢰감이 형성된 사람과 친숙한 환경에서 네 가지 내용범주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는 성인의 말소리를 듣는 것에 흥미를 나타내고 소리나 웅얼이, 어휘를 즐겨 표현하도록 눈을 맞추고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림책의 그림을 즐겨 보며 마음껏 끼적이도록 격려해 준다.

02

목표

말소리를 구분하고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한다.

- 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관심을 보인다.
- 나. 표정, 소리,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다. 짧은 그림책이나 친숙한 환경 인색물에 관심을 가진다.
- 라.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0-1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말소리를 구분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말하고 듣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할 줄 알고 용알이로 말소리를 만들어 내며 상대와 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그림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아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듣기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정과 몸짓 및 말소리로 표현하며, 짧은 그림책이나 친숙한 인색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관심을 보인다.

듣기는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 말소리를 구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소리 듣기에 우선 흥미를 보여야 하고 소리와 말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어디서 시작하고 멈추는지, 높낮이는 같은지 다른지 등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말소리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 소리의 의미는 현재 영아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나타낸다. 만 0-1세 영아는 눈앞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는 반복적인 경험과 그와 관련된 말소리의 의미를 연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말소리에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눈길, 표정, 몸짓 등을 바라보고 이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돌려 그 사람을 응시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형성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며, 이를 전제로 현재 듣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표정, 소리, 몸짓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말하기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전달하고 싶은 욕구, 의도를 소리로 표현 하되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영아는 생후 처음에는 울음이나 여러 소리, 웅얼이 등으로 오랜 시간 말소리를 내다가 차츰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말소리나 단어로 발음하여 말하게 된다.

만 0-1세 영아는 자신의 생리적인 상태와 감정을 울음이나 얼굴표정, 눈길, 미소 짓기, 소리내기, 말소리 등으로 표현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도 민감하여 그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응한다.

만 0-1세 영아의 말하기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구조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 후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영아가 적절하게 표정이나 몸짓, 말소리로 이에 반응해야 한다. 만 0-1세 영아는 말소리를 조금씩 더 잘 조절하면서 소리를 내어 가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하다가 점차 두 단어를 나열하여 표현할 줄 알게 된다.

다. 짧은 그림책이나 친숙한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

문자 사회에 살고 있는 영아는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환경 인쇄물과 영아용 짧은 그림책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다. 인쇄물과 그림책은 문자를 지니고 있는 사회에서만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표현물이다. 생후 0-1세 영아는 분유통에 그려진 아기 얼굴 그림이나 우유의 상표들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교사나 성인이 제공한 영아용 그림책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고 그 그림에 대해 말하면 그 내용을 주의하여 듣는다. 점차적으로 영아는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친숙한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보려고 시도하게 된다.

라.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쓰기에 대한 관심은 손목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기고 영아가 혼자 앉기 시작하는 6개월경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회가 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끼적거린다. 영아가 자연스럽게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끼적거리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영아가 듣고 말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이해하는 기초를 형성하며 처음으로 접하는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갖고 끼적이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말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주변의 소리나 말소리, 경험과 관련된 말, 운율이 있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경험을 포함한다.

‘말하기’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말할 순서를 구별하여 자신의 욕구를 발성과 발음, 표정, 몸짓뿐 아니라 말소리로도 표현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읽기’는 짧고 간단하며 흥미로운 그림책이나 자주 접하는 친근한 환경 인쇄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험을 한다.

‘쓰기’는 손에 짤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끼적이기를 시도하는 경험을 포함한다.

내용범주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 경험과 관련된 말 듣고 알기 • 운율이 있는 말 듣기 • 말하는 사람을 보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 •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 말할 순서 구별하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 가지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끼적이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듣기

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는 만 0-1세 영아가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다가 점차 말소리에 호기심을 느끼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소음 및 말소리 중에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소리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			
			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에 반응한다.	

‘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인다’는 생후 태어나면서부터 약 18개월까지의 1-3수준 영아가 주변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이에 흥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3수준 정도의 영아는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된다. 교사는 영아를 위하여 영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간단한 조작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딸랑이, 모빌 등과 같은 놀잇감을 비치하고, 소리에 대한 영아의 관심을 유도해 주도록 한다. 또한 같은 말소리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발음을 해주어서 말소리 듣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상호작용을 해준다.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는 18개월 이상의 영아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낱말들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러한 발음에 대해 흥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친숙한 낱말이 증가할수록 교사는 여러 느낌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이도록 영아를 격려한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한다’는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의 말소리를 구별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며, 반복적으로 들었던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이게 된다. 영아가 교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을 때 이를 격려해 주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즐겁게 들으려 할 때 이에 대해 반응해 주도록 한다.

‘높낮이와 세기 등 말소리의 차이에 반응한다’는 영아가 만 1세경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말소리의 발음뿐 아니라 높낮이, 강약의 세기, 길게 끌거나 잠깐 소리를 내지 않는 것 등 말소리의 차이에 관심을 보이며 이에 반응을 한다. 말소리의 차이는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하기도 하고,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아에게 간단한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대화하는 말소리보다 길고, 높낮이가 있게 글을 대화하듯 읽어주면 영아는 이러한 차이를 즐기게 된다.

나) 경험과 관련된 말 듣고 알기

‘경험과 관련된 말 듣고 알기’는 0-1세 영아가 자신에게 들리는 말소리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나 행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그 말소리의 의미를 이해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경험과 관련된 말 듣고 알기	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듣고 반응한다.		

‘눈 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한다’는 교사가 기저귀 갈기, 옷 갈아 입기, 손 씻기, 음식 먹기, 잠자기 등 일상적 경험을 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하게 되고, 영아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경험과 관련된 특정 어휘나 사물의 명칭 연결이 어렵지만 경험이 누적되면서 경험과 익숙한 사물의 명칭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기저귀 갈자” 등과 같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말로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친숙한 일상용품의 단어를 동일하게 자주 사용한다. 놀이를 하는 중에도 영아가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과 행동을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해 주도록 한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듣고 반응한다’는 영아가 태어난 후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 영아 자신의 이름을 듣고 상대방을 향하여 자세를 돌려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소리나 몸짓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능력이다. 교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할 때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이러한 경험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도우며, 영아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교사를 향하여 돌아보고 시선을 고정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다) 운율이 있는 말 듣기

‘운율이 있는 말 듣기’는 의사소통의 기초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만 0-1세 영아에게 운율이 있는 짧은 말이나 리듬감있게 들려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에 대한 즐거움과 주의 깊게 듣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말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아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즐겁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듣는 능력이 길러진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운율이 있는 말 듣기	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			

‘운율이 있는 짧은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생소한 낱말이라 하더라도 반복적 리듬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면 편안하고 즐겁게 들리게 되므로 영아는 이를 관심 있게 듣게 된다. 교사가 영아와 일상경험이나 놀이를 할 때 짧은 문장이나 낱말에 운율을 넣어서 반복하여 들려주면 영아는 이를 즐기고 그 말소리를 관심 있게 듣게 된다. 운율을 넣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한 목소리로 하며 리듬감 있게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하고 영아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지속한다.

라) 말하는 사람을 보기

‘말하는 사람을 보기’는 의사소통의 기본적 구조인 상대방을 바라보며 교대로 의사를 주고받는 차례 맞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말소리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단서로 상대방의 눈이나 표정, 몸짓을 함께 보고 이를 활용하여야만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말하는 사람을 보기	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바라본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을 관심 있게 본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 바라본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첫 필수적 요소로 말하는 상대방을 응시하는 것이다. 생후 4주가 되면 영아는 어머니의 눈길을 찾기 시작할 수 있고 생후 2-3개월이 되면 어머니와 시선을 서로 고정하고 응시한다. 이러한 응시하기가 이루어져야 상대방이 전달하는 몸짓이나 표정, 말소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1-2수준에서 영아는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상호교환적 행동의 첫 단계인 말하는 상대방에 눈길을 고정하여 마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0-1세 영아에게 말을 할 때, 우선 이름을 불러서 영아의 시선을 교사에게 고정하도록 눈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바라봐준다. 영아에게 새로운 사물이나 행동, 경험을 표현할 때, 교사는 풍부한 표정, 반복적인 몸짓, 손가락 가리킴 등의 행동을 하여 영아의 시선을 끌며, 상호교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새로운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을 관심 있게 본다’는 영아가 3-4수준이 되면서 눈을 바라보는 것에 더 추가하여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의도를 해석하며,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한다. 교사는 영아에게 말을 할 때 이에 맞는 몸짓을 함께 보여주도록 한다. 즉 상자의 뚜껑을 닫는 행위를 할 때, 말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뒤집었다가 돌려서 뚜껑 위에 얹는 몸짓을 함께 보여주며 행동과 관련된 어휘를 들려주도록 한다.

2) 말하기

가)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는 영아가 다양한 발성과 웅알이를 시도하고, 그 소리를 즐겁게 내며 스스로 의미 있는 음절을 내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웅알이부터 시작하여 소리나 말소리에 대한 모방까지 영아가 시도를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발성과 발음으로 소리내기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웅알이를 한다.		여러 말소리를 즐겁게 내 본다. 의미 있는 음절을 내 본다.	
	웅알이와 말소리에 대해 말로 반응해 주면 모방하여 소리 낸다.		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웅알이를 한다’는 출생 후부터 1-2 수준의 영아가 처음에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다가 점차 의미 있는 발성인 웅알이를 하게 되고 좀 더 정확한 말소리를 연습해 가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물건을 손으로 잡거나 환경을 탐색할 때 반복적인 웅알이를 많이 한다. 이때 상대방이 영아의 웅알이와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그 소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소리를 교대로 내는 것에 흥미를 나타낸다.

‘여러 말소리를 즐겁게 내 본다’는 영아가 말소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기초 능력으로서 소리를 내는 자체를 즐거워하고, 반복하여 소리를 내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아는 점차 의미 있는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 사용되는 발음으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된다. 영아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시기와 표현하는 낱말의 양은 개별적인 차이가 매우 크므

로, 무리하게 새로운 말소리를 내도록 요구하기보다 영아의 표현 정도와 욕구를 헤아려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비록 몇 낱말 밖에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단어의 4~6배 이상의 어휘를 영아가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미 있는 음절을 내 본다’는 영아가 3-4수준이 되면 첫 단어를 발음하고 약 50여개의 단어를 표현하다가 이 시기 동안 단어 습득이 급격히 증가하여 4수준이 끝나갈 무렵에는 무려 200-300여개의 어휘가 습득된다. 이때 정확하게 의미 있는 음절을 소리 내는 것도 향상되고 여러 말소리도 즐겨 내지만, 아직도 반복적으로 웅알거리는 것 역시 계속하고 있다. 교사는 영아가 발음해 내는 소리 중에서 의미 있는 음절을 듣고 이에 자주 반응을 해 주어 영아를 격려한다.

‘웅알이와 말소리에 대해 말로 반응해 주면 모방하여 소리 낸다’는 의사소통을 하는 두 사람이 차례 맞기를 하는 기본적인 구조로서 영아의 웅알이와 말소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해 주면, 그와 비슷한 소리를 영아가 모방하여 다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례 맞기는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중요하며 교사는 영아의 웅알이나 말소리에 즐겁고 편안하게 매번 반응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한다’는 3-4수준의 영아가 교사가 말을 하면 짧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대로 모방하여 발음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을 말한다. 교사가 영아의 소리에 반응하여 잘 듣고 격려해 주는 것은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사는 영아와 말을 주고받는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고, 영아가 다양한 소리나 웅알이, 말소리를 낼 때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반응해 주도록 하면 점차 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즉 영아가 “마~마~마”와 같이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 때, 교사는 이를 반복해주고 이러한 재강화의 과정을 거쳐 영아의 언어 표현은 웅알이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진보하게 된다.

나)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는 만 0-1세 영아가 교사나 성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려 표정, 몸짓, 소리나 말소리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표정, 몸짓, 말소리로 말하기	표정과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표정, 몸짓,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표정과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생후 첫 6개월 정도의 영아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정과 울음소리, 단발음의 소리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표정, 몸짓, 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생후 6개월이 지난 영아가 첫 단어를 사용하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를 주로 표정, 몸짓, 여러 소리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가 영아에게 말을 걸 때나 개별적인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과 함께 이를 충분히 표현하는 몸짓을 사용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몸짓과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이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한 영아가 이후 어휘가 폭발을 하면서 점차 표정과 몸짓은 물론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생후 0-24개월까지 영아는 자신이 낱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해도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사용하여 의사 표현을 하므로 교사는 0-1세 영아의 표정과 몸짓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3-4수준의 영아가 몸짓만으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교사가 말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준다. 교사가 적절하게 영아의 언어표현을 이끌어 낼 경우, 영아는 몸짓과 표정과 함께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자신 있게 표현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다) 말할 순서 구별하기

‘말할 순서 구별하기’는 영아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자신이 말할 순서를 아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사교환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말할 순서 구별하기	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			

‘말할 순서에 따라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한다’는 만 0-1세 영아가 자신에게 말하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리다가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되면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화는 주고받음의 상호교환의 구조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아가 이러한 공동주의집중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순서에 알맞게 참여하는 대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사는 0-1세 영아가 사물을 가리키거나 물건에 시선을 보낼 때,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고 함께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을 걸어주어 영아 자신이 표정, 몸짓, 말소리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하여 제공해 준다.

3) 읽기

가)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가지기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가지기’는 만 0-1세 영아가 책과 장난감을 구별하게 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감각 그림책과 주변에서 자주 본 표지판, 게시물, 광고지 등 그림이 많은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보이며, 읽어주는 그림책에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관심 가지기	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 본다.			
			사물과 주변의 친숙한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감각 책을 탐색해 본다’는 만 0-1세 영아가 주변의 사물을 지칭하는 낱말은 아직 모르지만 다양한 촉감으로 인해서 감각 책의 그림은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넘기기 쉬운 딱딱한 종이책, 여러 가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형겔책, 비닐책, 소리 나는 책, 참여할 수 있는 책 등을 탐색하며, 이때 교사는 책을 그대로 읽어주기보다 그림에 대해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반복되어 운율과 리듬감이 있는 책, 배변훈련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습관을 다룬 내용이 담긴 책, 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책 등도 이 시기의 영아가 즐겨 탐색한다.

‘**사물과 주변의 친숙한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생후 12개월이 넘는 영아가 자신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던 상품(예: 분유나 기저귀 등)의 겉표지의 상표를 구별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심은 이후 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시 등과 같이 상징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형성한다. 교사는 친근한 사물들의 그림이나 사진, 가족사진, 아기사진, 영아가 자주 접했던 친숙한 환경인쇄물(분유나 우유, 시리얼, 주스 그림과 상표 등)을 눈높이에 게시해주거나 종이블록에 붙여주어서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물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이야기를 들을 때 말없이 그림만 쳐다보다가 그림을 지적하거나 그림의 명칭을 이해하게 되고, 영아가 그림책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에게 친숙한 그림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 책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책을 볼 준비가 되면 친숙한 사물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책을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또한 영아의 침대 주변이나 기저귀갈이대 등에 친숙한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주거나 영아들이 편안하게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교실의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곳에 책보기 영역을 구성하고 쿠션, 소파, 카펫 등을 마련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영아와 그림책을 볼 때 영아가 책장을 넘기려 시도하면, 무리하게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주기 보다, 영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간단히 내용을 들려주고 다음 장을 보여준다. 영아가 반복하여 같은 그림책을 듣고 싶어 하면, 교사는 새로운 책을 번갈아 가며 읽어주기보다는 영아들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책을 매번 반복하여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도록 한다.

4) 쓰기

가) 끼적이기

‘**끼적이기**’는 만 0-1세 영아가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손과 팔을 움직여 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벽이나 바닥에 끼적이기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가 손과 팔을 눈과 협응하여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끼적거리기의 기초가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끼적이기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생후 6개월 이후의 영아가 손과 팔을 움직여 무작정 끼적이다가 점차 자신이 끼적인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며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이 직접 감각으로 탐색하고 움직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끼적이기는 이러한 영아의 흥미를 모두 포함하는 즐거운 경험이 된다. 교사는 2-4수준의 영아가 마음대로 손과 팔을 움직이며 종이에 끼적거리는 것 자체를 즐기며, 자신이 끼적거린 결과에 관심을 보이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벽이나 바닥, 낮은 책상에 큰 종이를 붙여주어 끼적이기를 마음껏 시도하도록 하고, 영아가 잡고 움직이기가 쉬우며 입에 닿아도 무해한 굵고 손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끼적이기 도구를 제공해 준다. 영아가 4수준이 되었을 때 교사는 영아가 끼적인 것을 보며 ‘이게 뭐야?’라고 자주 물어봐 준다. 영아가 자신이 끼적거린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를 즐겁게 인정해주고 꼬덕여 수용해준다. 이러한 묻고 대답하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영아는 끼적거리는 것에 의미를 추가하고 즐거움을 배가해 나간다.

IV | 사회관계

01

성격

사회관계 영역은 영아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며,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기초를 익히도록 하는 영역이다.

영아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친숙한 물건을 구별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존중감의 기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이후 평생 동안 사회관계의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영아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는 정서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이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거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영아기 사회관계는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를 알고 복수의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친숙한 사람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확대된다. 영아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기’, ‘더불어 생활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내용범주는 영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필요한 내용이며 두 번째 내용범주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반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마지막 내용범주는 영아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영아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하는 데 필요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의 친숙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02

목표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

- 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된 존재로 인식한다.
- 나. 기본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 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나 교사와 함께 지낸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분리된 존재임을 알고, 주 양육자, 가족, 또래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사회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영아기는 자신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며, 함께 생활해보는 경험을 통해 평생 동안 지속될 사회관계의 토대를 갖추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영아의 자아존중감과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알고 반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된 존재로 인식한다.

영아는 자신이 주 양육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영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에서 확장되어 점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고유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0-1세 영아는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 것을 인식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알고 존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거나 자기 이름에 반응하며 친숙한 자기 물건을 알아보는 등의 경험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기본 정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영아는 자신의 기본 정서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영아가 자신의 고유성을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기초가 된다. 영아는 즐거운 감정이나 무서운 감정 등의 정서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감이나 불안, 두려움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거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기본 정서를 알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갈 수 있도록 민감하고 따뜻하게 지원해주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지지해주는 데 중점을 둔다.

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나 교사와 함께 지낸다.

영아는 주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이 환경 속에서 안전한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애착관계는 영아가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지적 발달과 신체 및 정서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이 매일 접촉하는 주 양육자인 가족이나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민감하고 사려 깊은 온정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가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영아가 자신을 알고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듣고 반응하거나 친숙한 자기 물건이 자기 것인 줄 아는 등 자신의 기본 특성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기 존중감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낼 줄 알며, 다른 사람의 행동, 표정,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영아가 주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의 친숙한 사람이나 또래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해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반이나 담임교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구별하기 • 나의 것 인식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기울이기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애착형성하기 • 또래에 관심 갖기 •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 사회적 가치를 알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가) 나를 구별하기

‘나를 구별하기’는 영아가 자신을 일차 양육자와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의 손이나 발 등 신체를 탐색하고, 일차 양육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나를 구별하기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본다.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거울에 비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 및 움직임에 익숙해지면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거나, 교사



와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울 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는 등 자연스럽게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본다’는 영아가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신이 움직이면서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이 바뀐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곤지곤지 잼잼 놀이를 하는 등 거울을 보면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나) 나의 것 인식하기

‘나의 것 인식하기’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나 친숙한 물건 등 자기에게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기의 이름이 있고 자신의 옷이나 음식 등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해 나간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나의 것 인식하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친숙한 자기 물건을 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수유, 이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놀이를 할 때, 혹은 낮잠을 자거나 낮잠에서 깨었을 때 교사에게 ‘○○야’라고 불리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유성을 인식하게 된다.

‘친숙한 자기 물건을 안다’는 영아가 자신의 얼굴 사진, 자신의 사물함 바구니, 자신의 옷가지 등 자기에게 속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보육실에서 교사와 함께 자기만 사용하는 기저귀, 자기 옷, 자기의 사물함 등을 이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개별성을 인식할 수 있다.

2)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가)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는 영아가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 즉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즐거움과 기쁨, 두려움과 슬픔, 공포, 질투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분화시키며 이를 일상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게 된다. 영아는 자신의 신체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이를 표현하였을 때 교사로부터 민감하고 사려깊게 대우받아야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는 영아가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와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교사가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줌으로써, 자신의 표현이 수용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배고픔, 갈증, 피로 등 여러 가지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였을 때 교사로부터 즉시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게 된다.

나)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기울이기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기울이기’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일차 양육자나 또래 등 다른 사람이 자신과 분리된 존재이며,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자신과 다른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분리된 존재라는 것,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기울이기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영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짓을 살펴봄으로써 자신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상대방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을 보고 상대가 자신과 구별되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경험하며 자기 주변에는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영아가 주변의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을 보고 자신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밖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이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 더불어 생활하기

가) 안정적인 애착형성하기

‘안정적인 애착형성하기’는 영아가 일차 양육자와 애정적인 유대나 정서적 결속을 맺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일차 양육자에게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일차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이 믿을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신의 욕구가 민감하고 사려 깊게 충족될 때, 일차 양육자를 안전기반으로 삼아 활발히 환경을 탐색하여 신체적, 지적, 정서사회적 발달을 이루어가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안정적인 애착형성하기	양육자와 시선을 맞춘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욕구를 표현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양육자와 시선을 맞춘다’는 영아가 일차 양육자의 얼굴과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된 애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일차 양육자의 얼굴을 익히고 양육자와 시선을 맞추며,

따뜻하고 온정적인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욕구를 표현한다’는 영아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일차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 양육자에게 자신의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양육자의 정서적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일차 양육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만지려하고, 양육자를 쳐다보며 사회적인 미소를 짓는 등 양육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자신 역시 양육자를 따라다니거나 양육자에게 애정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영아는 일차 양육자에게 자신의 생리적, 정서적 욕구를 표현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일차 양육자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민감하고 사려깊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영아가 일차 양육자 외에 자주 보게 되는 주변 친숙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적 대상을 확장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일차 양육자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기타 가족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장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을 낯선 사람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영아가 자주 만나는 주변 친숙한 사람에게 울지 않고 안기거나 사회적 미소를 짓는 등 기초적인 애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에게 따뜻한 표정과 목소리를 보이며 애정을 나타내는 주변의 친숙한 사람을 낯선 사람과 구분하고 친숙한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애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나) 또래에 관심 갖기

‘또래에 관심 갖기’는 영아가 교사 외에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로서 또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 중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교사나 다른 영아 등 인적 환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의 기초를 익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또래에 관심 갖기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교사와 주된 상호작용을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영아도 교사와 접촉이나 교류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교사가 자신의 생리적 욕구나 기본 정서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해주지지만, 때로는 교사가 다른 영아를 먹여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잠시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영아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기다림이 오래 방치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자기도 곧 교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교사가 자신과 놀이를 하면서 주변의 다른 영아와도 놀이를 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다)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는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고 사려깊게 반응해주는 담임교사를 구별할 수 있고 자기가 소속된 보육실에서 지내는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담임교사를 구별한다.		자기 반에서 지내며 안정감을 가진다.	

‘담임교사를 구별한다’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지원해주는 주 양육자로서 담임교사를 인식하고 다른 성인과 담임교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배고픔, 갈증과 같은 여러 가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온정적으로 도와주며 자신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담임교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자기 반에서 지내며 안정감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기가 소속된 보육실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교사와 쾌적하고 안락하게 정비된 환경, 자신에게 친숙한 놀잇감, 자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주변 영아, 규칙적으로 전개되는 하루 일과 등을 통해 보육실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라) 사회적 가치를 알기

‘사회적 가치를 알기’는 영아가 사회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는 사회적 가치를 일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해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질서, 예절 등의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사회적 가치를 알기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안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안다’는 영아가 보육실에서 자주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으며, 자신의 개인 물품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이 하루 일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항상 정해진 자리에 있으면 환경에 대한 예측과 통제감을 가질 수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해본다’는 영아가 일차 양육자나 친숙한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 간단하게 인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친숙한 사람과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 분리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친숙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즐겁게 인사하는 경험을 통해 친숙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

V | 예술경험

01

성격

예술경험영역은 영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감각 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며 자연물, 사물, 환경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아름다움을 즐기고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영역이다. 영아가 자신의 주변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차 심미감을 키우고 감성 발달에 중요하며 인식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탐구하는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감각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주변과 독립된 자아에 대하여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이 주변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영아가 주변 자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은 창의적인 표현능력 발달에 기초가 되며 긍정적인 자아를 인식하게 하여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소리로 반응하며 점차 리듬감각을 가지고 움직임의 통해 기본 동작능력을 기르며 모방행동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한편 영아 시기는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름다움의 요소를 발견하고 좋아할 줄 아는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태도는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는 어린 시기부터 형성되는 것으로서 장차 감상능력 계발에도 관련이 되는 소양이다. 영아가 즐기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일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고운 심성을 갖추는 데 중요하며 자신을 둘러싼 대상에 대하여 상생하고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는 장차 타인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을 가지는 내용으로, ‘예술적 표현하기’는 리듬있는 소리,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을 경험하며 모방행동을 즐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감상하기’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고 표현하며 모방하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영아가 일상

에서 반복되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 사물이나 자연물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2

목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 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감각 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한다.
- 나. 소리와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을 경험하며, 모방 행동을 즐긴다.
- 다. 친근한 소리나 노래를 즐겨 듣고, 자연물, 사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예술경험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친숙한 자연과 사물 및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하기를 즐겁으로써 기초적인 심미감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신체와 주변의 감각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즐거워하며 친근한 소리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감성발달과 창의적인 표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가 주변 환경의 소리나 움직임, 색 모양 등에 호기심을 가지며 예술적 요소를 경험하며 즐기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감각 자극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한다.

영아기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며 탐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가 주변에서 나는 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손을 뻗고, 점차 목소리로 소리를 만들어 내다가 다른 사물이나 리듬악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아들이 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색과 모양 등과 관련하여 단순한 심미적 요소에서부터 점차 복합적인 심미적 요소들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각능력을 발달하게 하여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심미적 태도를 증진시키게 된다.

나. 소리와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을 경험하며, 모방 행동을 즐긴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가 리듬있는 소리나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 표현을 경험하며, 소리나 얼굴표정, 몸 움직임을 모방하며 즐기는 경험은 창의적 표현력 향상과 심미감 증진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아가 소리나 리듬과 움직임에 반응하며 자기 나름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친근한 소리나 노래를 즐겨 듣고, 자연물, 사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기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자연이나 주변 환경 안에서 저마다의 아름다움에 관심가지고 즐거움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지각, 인식 및 심미감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노래와 소리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활동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예술경험 영역은 0-1세 영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감각 자극에 호기심을 갖고 소리와 움직임으로 반응하며 단순한 미술 활동을 경험하고 모방행동을 즐기며 친근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며, 내용범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가지기
예술적 표현하기	•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 단순한 미술 경험하기 • 모방행동 즐기기
예술 감상하기	• 아름다움 경험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아름다움 찾아보기

가)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가지기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가지기’는 영아가 오감을 통해 주변 생활이나 환경에서 나는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색이나 모양에 호기심을 가짐으로써 예술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가지기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에서 소리와 움직임을 통한 미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점차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이다. 영아는 출생 시부터 대부분의 감각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감각을 통해 소리,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자신의 주변을 심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색과 모양을 통한 시각적 자극에 대하여 심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점차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이다. 영아가 시각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탐구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고 색이나 모양이 주는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2) 예술적 표현하기

가)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는 영아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리듬이 있는 소리를 구분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이며 점차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르

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리듬과 노래를 들었을 때 소리로 반응하며 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다룬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리듬 있는 소리로 반응하기	리듬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	
	리듬과 노래에 소리로 반응한다.		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	

‘리듬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중에서 리듬이 있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유심히 듣고 관심을 보임으로써 리듬감을 익히는 내용을 다룬다. 1수준과 2수준의 영아가 리듬 있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리와 리듬이 있는 운율을 구분하는 것으로 단지 청각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리듬있는 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가 청각의 식별능력을 발전시켜 점차 아름다운 리듬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며 이를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심미감 발달과 표현능력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된다.

‘노래를 부분적으로 따라 부른다’는 영아가 반복적이고 익숙하게 듣는 노래의 일부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다룬다. 3수준과 4수준의 영아가 점차 간단한 노래의 일부분을 따라하고 단순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리듬 있는 소리를 반복하며 즐기게 되고 이는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리듬과 노래에 소리로 반응한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의 다양한 리듬이나 노래 중에서 선호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으로 영아가 소리를 구분할 수 있고, 선호하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다. 1수준과 2수준의 영아는 선호하는 소리나 노래에 대하여 리듬감 있는 웅얼이나 발성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리듬있는 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감각을 풍부하게 하여 자유로운 음악적 표현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를 이룬다.

‘리듬과 음높이에 맞추어 소리를 낸다’는 영아가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을 흉내 내고, 주변의 사물이나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이 있는 소리를 만드는 내용을 다룬다. 3수준과 4수준의 영아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며 성인이 들려주는 리듬과 음높이에 따라 소리로 반응함으로써 리듬감을 기르고 창의적인 표현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나)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움직임으로 반응하기’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경험하는 시각과 청각 자극에 대하여 손과 발을 흔들고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느낌으로 반응하고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해 내는 내용을 다룬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움직임으로 반응하기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손발 흔들기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한다’는 영아가 운율에 맞추어 몸을 흔들거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다룬다. 영아는 손과 발을 흔들고 몸 움직임으로 반응함으로써 즐겁고 신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활용하여 즐기는 경험을 한다. 자신의 감정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아가 신체의 각 부분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비언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 뿐 아니라 통합된 정서를 점차 분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인다’는 영아가 자신의 몸 움직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스카프, 다양한 재질의 공 등을 활용하여 도구가 만들어내는 모양, 선, 형태 등을 경험하는 내용을 다룬다. 영아는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으로써 도구 조작능력을 기르고 기본운동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보다 풍부한 예술 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몸으로 움직일 때보다 다양하고 큰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어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즐길 수 있다.

다) 단순한 미술 경험하기

‘단순한 미술 경험하기’는 영아가 감각을 통해 미술표현을 시도하고 즐기는 내용이다. 미술재료와 익숙해지며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한 흔적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표현을 보고 기뻐하여 반복함으로써 미술적 표현능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단순한 미술 경험하기			감각적으로 단순한 미술경험을 한다.	

‘**감각적으로 단순한 미술경험을 한다**’는 영아가 감각을 이용하여 단순한 미술 경험을 하는 내용을 다룬다. 3수준과 4수준의 영아는 대·소근육이 발달하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주변 사물을 쥐어보고, 누르고, 던지고, 뜯어보고, 문지르고, 비벼보는 등 촉감을 사용한 다양한 질감 놀이를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미술 경험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영아는 미술경험을 시도하다가 우연치 않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점차 의도된 모양이나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미술 표현을 시작으로 쓰기의 초기표현이 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소근육 조작 능력 등 복합적인 발달을 증진할 수 있다.

라) 모방행동 즐기기

‘**모방행동 즐기기**’는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타인의 표정이나 모습,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에서부터 단순한 역할을 상상놀이로 즐기는 내용을 다룬다. 영아는 자신이 익숙하게 관찰하였고 반복적으로 알게 된 경험, 느낌, 감정, 말 등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즐거움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모방행동 즐기기	소리나 얼굴 표정, 몸 움직임 등을 모방한다.		단순한 모방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소리나 얼굴 표정, 몸 움직임 등을 모방한다**’는 영아가 익숙하고 의미있는 사람의 소리나 얼굴 표정, 몸 움직임 등을 모방하는 내용을 다룬다. 어린 영아라도 친숙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방행동은 영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획득하고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줄 아는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

‘**단순한 모방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는 영아가 단순한 모방행동을 통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고, 상대의 모방을 유도하며, 영아가 이를 다시 모방하는 순

환경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룬다. 영아가 주로 자신을 양육하는 친근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신체인식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표상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모방행동은 향후 상상놀이와 역할놀이와도 상호 연계되어 발달한다.

3) 예술 감상하기

가) 아름다움 경험하기

‘아름다움 경험하기’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고 반복하는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즐겨 들으며 자연이나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경험하고 즐기는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영아의 심미감 발달 뿐 아니라 감성발달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아름다움 경험하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를 즐겨 듣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반복하여 듣게 되는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와 주변의 소리 그리고 노래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영아는 소리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되므로 주변의 소리를 들려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며 리듬감 있는 소리와 노래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가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증진해 나가고 소리와 노래에서 아름다움을 즐기는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리듬있는 소리와 노래 듣는 것을 즐기며 감상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감상이란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으로 일상 속에서 익숙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아가 예술경험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친숙한 소리나 노래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소리를 즐기며 점차 심미감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이나 사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영아는 저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영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며 경험하는 것은 감상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예술 감상의 경험이 작품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매일 둘러보는 자연이나 생활환경을 통해서 특징이나 차이를 경험하며 이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감상능력 증진뿐 아니라 탐구적인 태도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VI | 자연탐구

01

성격

자연탐구 영역은 영아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상황을 지각하고,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가며 일상생활 속에서 기초 수학적,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탐구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탐색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 만1세 영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알아보고자 하므로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시기 영아는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직접 해보고 감각을 통해 확인하여 봄으로써 주변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는 영아가 미래 지식산업 기반사회에서 필수 요소인 논리·수학적 사고와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다.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세 개의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내용 범주는 주변 사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행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영아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범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는 영아가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가는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영아가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탐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자 할 때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학적,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기초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과학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목표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가. 주변사물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상황을 지각한다.

다.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지각한다.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기는 태도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수학적, 과학적 기초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0-1세 영아기는 주변세계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개인적 의미를 구성해가는 탐색 수준으로 발달해가는 특성이 있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0-1세 영아는 보고, 듣고, 만지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목표를 가진다.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초 수학적, 과학적 개념을 자연스럽게 구성해 갈 수 있도록 다감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주변 사물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0-1세 영아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물을 눈으로 응시하고 들려오는 소리에 관심을 보이며 나와 주변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하며, 관심 있는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으로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영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영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과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하고,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상황을 지각한다.

0-1세 영아기는 주변 사물과 주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고,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구별하며, 일상과 놀이에서 주변 공간을 탐색하고, 도움을 받아 주변 공간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 사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영아는 생활용품, 놀잇감 등 주변의 여러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놀면서 사물과 상황이 가진 기초 수학적 특성을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 장면에서 수량을 지각하고, 주변공간을 탐색하며, 차이를 지각하고,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 감각과 조작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 환경에 대해 지각한다.

0-1세 영아기는 일상생활 주변의 친숙한 사물이나 자연물,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주변의 자연물과 자연 현상을 감각으로 느끼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활도구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기이다. 영아는 일상생활의 친숙한 물체와 물질들을 양육자와 더불어 탐색하고,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돌, 물, 흙 등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보고, 일상생활에서 놀잇감과 생활도구를 탐색해 봄으로써 스스로 주변 물체와 물질, 동식물, 자연물, 날씨, 생활 도구 등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주변 물체와 물질에 대해 탐색하고, 주변 동식물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도구를 탐색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로 구분된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과학적 태도에 관한 내용이며, ‘수학적 탐구’와 ‘과학적 탐구’는 기초과학적 지식 구성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영아가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수학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초 개념을 구성하여,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을 시도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하고, 주변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수학적 탐구하기’는 수량지각하기, 주변 공간 탐색하기, 차이를 지각하기,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하고, ‘있다’와 ‘없다’를 구별하고,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하고,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하고,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하며, 주변 사물의 차이를 지각하고, 일상과 놀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과학적 탐구하기’는 물체와 물질을 탐색하고, 주변 동식물과 주변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도구를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하고,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보고,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으로 느껴보고, 도움을 받아 생활도구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초 과학적 개념을 구성해 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에 관심 가지기 • 탐색 시도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지각하기 • 주변 공간 탐색하기 • 차이를 지각하기 •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 주변 자연에 관심 가지기 • 생활도구 탐색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가) 사물에 관심가지기

‘사물에 관심가지기’는 영아가 자신과 주변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내용이다. 0-1세 영아의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은 감각 및 신체 기능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여러 감각을 통하여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탐색하는 태도를 기르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사물에 관심 가지기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더 구체적으로 영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에 보다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다. 영아는 좋아하는 사물을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사물을 손에 쥐고 보거나, 입에 넣고 빨아본다. 기어 다니거나, 짚고 일어서거나, 걷는 것이 가능해지면,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각하는 범위를 넓혀가게 된다. 영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에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 주고, 때로는 함께 주의를 집중해 주면서 지지해주면 주변 사물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게 된다.

나) 탐색 시도하기

‘탐색 시도하기’는 자신과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의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의도적으로 탐색적 행동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세 미만 영아는 자신과 주변 사물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빨고, 소리를 듣는 등 감각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행동을 한다. 생후 6개월 이후가 되면 주변의 사물을 떨어뜨리거나 잡아당기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의도적인 탐색을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탐색 시도하기	나와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한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나와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한다’는 영아가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물을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내용이다. 6개월 미만 영아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고, 빨아보고, 발을 잡아보고, 빨고, 손에 쥐는 물건들을 입 속에 넣고 빨거나 하면서 감각으로 자신과 주변 사물을 탐색한다. 영아가 자신과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탐색하도록 눈의 위치를 맞춰서 모빌 종류를 매

달아주고, 입에 넣고 빨아도 안전하도록 청결한 놀잇감을 손에 쥐어주면 자신과 주변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하게 된다.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한다’는 주변의 사물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하는 탐색행동을 시도하는 내용이다. 생후 6개월 이후의 영아는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찾고, 집어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유심히 보고,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들으며 감각으로 탐색하며 즐긴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찾기, 미끄러뜨리기, 던져보기, 뒤집어서 탐색하기, 고의로 물건 떨어뜨리기와 같은 의도적인 탐색행동이 나타날 때, 함께 주의를 집중해 주고 관심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특정 사물이나 환경을 반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영아의 반복되는 탐색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지원하고, 탐색의 범위를 확장해 가도록 격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해주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함께 지켜봐 주면서 지지해 주면, 영아는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의도적인 탐색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2) 수학적 탐구하기

가) 수량 지각하기

‘수량 지각하기’는 사물이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하고, 알아차리고 구별하며,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하는 내용이다. 2세 미만 영아는 사물의 있고 없는 상황, 생활 속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수를 세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물체의 있고 없음을 구별하고, 물체의 수량을 지각하고 수량화 할 수 있는 기초를 구성해 가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수량 지각하기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한다.	‘있다’와 ‘없다’를 구별한다.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한다’는 물체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하면 영아의 표정과 응시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아가 있고 없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지각하게 되는 내용이다. 영아는 놀이와 일상생활 장면에서 ‘있다’와 ‘없다’를 지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영아는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우연한 상황이나 의도

적으로 물건이 없어지도록 하는 숨기고 찾기 놀이, 까꿍 놀이 등을 하면서 언어적 지원과 놀이 확장을 자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는 있고 없는 상황을 지각하게 된다.

‘**있다와 없다를 구별한다**’는 일상생활에서 눈앞에서 물건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있다’와 ‘없다’를 구별하게 되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잘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나 항상 놓여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찾는 놀이를 하면서 없어지게 했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있다’와 ‘없다’를 구별하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용품, 놀잇감 등 주변 사물이 있다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사물의 위치에 변화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영아가 보는 앞에서 숨기고 찾는 놀이를 하고, 없어진 물건을 찾아보도록 격려하게 되면, 영아는 이를 알아차리고 찾아보게되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는 사물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 ‘많다’ 등의 수량 관련 어휘를 알아듣고 구별하게 되는 내용이다. 영아가 좋아하는 작은 놀잇감을 한 개, 여러 개 별도로 담아두어 한 개와 그 이상의 수량이 있는 것을 인식하여 구별하는 경험을 하거나, 한 개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세 개를 보여주거나 하면 영아의 표정과 응시 시간이 달라지고,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나) 주변 공간 탐색하기

‘**주변 공간 탐색하기**’는 매일의 생활환경 속에서 주변공간을 탐색하는 내용이다. 0-1세 영아의 주변 공간에 대한 탐색은 성장 발달과 연관되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간 지각은 영아 자신을 중심으로 시야에서 사물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경험에서 시작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 공간 탐색하기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		

‘**도움을 받아 주변의 공간을 탐색한다**’는 아직 운동발달이 미숙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인이 도와주어 주변공간을 탐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1세



미만 영아는 운동발달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성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 공간 지각이 달라진다. 1세 이전에는 감각운동적 자기중심성을 보이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사물의 위치를 단지 자신의 감각운동과 관련해서 보게 되므로 물건을 영아 가까이 가져다 놓아주도록 한다. 만1세가 지나면서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대상과의 관계, 또는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지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아를 안아주거나 성인이 누워서 발로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말 타기 놀이 등을 해 주면 공간을 탐색하는 범위가 더 확장된다. 영아는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경험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주도적으로 다니는 데 익숙해지고, 성인의 도움을 점진적으로 줄여주면 자발적인 공간 탐색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한다’는 주변에서 매일 매순간 접하는 사물의 모양을 지각하게 되는 내용이다. 0-1세 영아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엄마 얼굴, 젖병, 천정, 벽시계, 생활용품, 놀잇감, 자연물 등 여러 가지 사물을 매일 접하고 가지고 놀면서 사물이 가진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지각한다. 영아는 모양 관련 어휘를 듣게 되고 일상에서 접하는 놀잇감과 친숙한 주변 사물의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각하면서 공간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구성해 간다.

다) 차이를 지각하기

‘차이를 지각하기’는 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을 비교하기 전에 탐색을 통해 먼저 사물이 가진 감각적 속성을 자연스럽게 지각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차이를 지각하기			주변 사물의 차이를 지각한다.	

‘주변 사물의 차이를 지각한다’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사물들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물의 색, 크기, 길이 등의 속성의 차이를 지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가 간단한 크기나 길이 비교 관련 어휘로 ‘길다, 짧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등의 어휘를 자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1세 영아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주변 사물에 흥미를 보이고, 보고 만지고 직접 가지고 놀면서 사물이 가진 감각적 속성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지각하게 된다.

라)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하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색, 모양, 소리, 리듬, 동작에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간단한 규칙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영아는 하루일과를 통해 간단한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영아가 간단한 규칙성을 지각하는 것은 규칙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간단한 규칙성 지각하기			일상과 놀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한다.	

‘일상과 놀이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한다’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나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일과의 규칙성을 잘 알아차린다. 놀이 후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이나 간식을 먹은 후 다시 놀이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하게 된다. 규칙성이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나 말을 들으며 소리나 리듬의 규칙성을 경험한다. ‘ 짹짹, 도리도리, 짹짹 ’ 등의 활동으로 청각적 규칙성과 동작적 규칙성을 경험한다. 타일의 무늬나 색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시각적 규칙성을 지각한다. 1세 영아는 규칙성을 포함하고 있는 시각적, 청각적, 동작적 자극이나 간단한 규칙성이 포함된 음악이나 노래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규칙성을 경험하게 된다.

3) 과학적 탐구하기

가)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에서 ‘일상생활 주변의 몇 가지 친숙한 것들을 양육자와 함께 탐색한다’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몇 가지 친숙한 사물을 함께 탐색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색다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익숙하지 않은 맛이나 좋지 않은 냄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타고난 감각적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의 수많은 자극에 반응한다. 성장하면서 영아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특징을 지각하는데,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사물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만지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진보된 감각적 탐색을 한다. 성인이 영아의 시선을 따라 가면서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사물에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사물을 직접 감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음대로 구기고 찢을 수 있는 종이나, 파고 문지르고 주무를 수 있는 밀가루 반죽, 끌거나 당겨서 움직임이나 변화가 나타나는 놀이감 등을 손을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영아는 다양한 맛을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안전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보면서 물체와 물질을 탐색하며 기초 지식을 구성해 가게 된다.

나)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동식물에 관심가지기’에서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의 익숙한 동식물의 모양이나 소리, 움직임 등의 외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재미있어하며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새싹, 꽃잎, 움직이는 애완동물, 수족관 속의 물고기, 곤충을 보게 되면 관심을 보인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흥내 내며, 영아의 관심을 물고기의 생김새와 움직임에 모아본다. 아주 어린 영아들은 움직이는 생명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기 보다는 유심히 바라보면서 감각을 집중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 동물이나 곤충의 소리와 움직임에 대하여 심하게 두려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기도 하며,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 영아는 안전한 주변 동식물을 자주 접하면서 생명체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 주변 자연에 관심 가지기

‘주변 자연에 관심가지기’는 생활 주변의 자연물과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을 통하여 느끼는 내용이다. 0-1세 영아는 나뭇잎이나 꽃, 물, 돌 등의 자연물과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주변 자연에 관심 가지기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으로 느껴본다.		

‘생활 주변의 자연물을 감각으로 느껴본다’는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자연물에 관심을 보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거나 하면서 감각을 통하여 느껴보는 내용이다. 영아는 물놀이를 하면서 물을 만져보고, 두드리고, 철벅거리고, 플라스틱 그릇이나 물오리 등을 가지고 놀면서 물을 감각으로 느껴보게 된다. 1세 영아는 주변에 있는 물, 나뭇잎 등의 자연물에 관심을 보이고 만져보면서 독특한 느낌을 경험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가게 된다.

‘바람, 햇빛, 비 등을 감각으로 느껴본다’는 일광욕을 하거나 산책, 바깥놀이를 하면서 바람, 햇빛, 비 등 직접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내용이다. 2세 미만 영아는 부드러운 햇볕을 쬐거나 바깥을 산책할 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인다. 날씨가 좋을 때 느낄 수 있는 맑은 공기의 쾌적함이나, 바람의 파스함과 부드러움을 느낀다. 월령이 증가하면서 날씨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다. 비 오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천둥소리에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영아는 자연현상, 낙엽 줍기, 눈 만져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 날씨를 감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게 된다.

라) 생활도구 탐색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생활도구 탐색하기			도움을 받아 생활도구를 탐색한다.	

‘생활도구 탐색하기’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 도구를 탐색 한다’는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보게 되는 생활도구에 관심을 보일 때 성인이 만져보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세 영아는 숟가락이나 컵의 사용에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사용하고자 한다. 숟가락이나 컵에 관심을 보이면서 숟가락이나 컵을 잘 못 잡고 두드리거나 떨어뜨려보거나 굴려보기도 한다.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켜 봐 주고, 스스로 도구를 이용하여 밥을 먹으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는 숟가락이나 컵을 바르게 잡도록 도와주고, 점차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도록 한다. 1세 영아는 생활도구를 탐색하다가 점차 생활도구에 친숙하게 된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04

2세 보육과정 각론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I | 기본생활

01

성격

기본생활 영역은 2세 영아가 조금씩 규칙적이 되어 가는 일과에서 수면과 식사, 배변 등 건강한 일상을 즐겁게 경험하고,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조심하며 어른의 지시를 따라 안전한 생활 경험의 기초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2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위생과 청결을 익히고 바른 식생활 태도를 갖추며 질병에 대해 아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을 알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놀이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영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생활 영역은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두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 범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는 건강·영양·위생적인 생활을 강조하며, 영아가 신체의 청결과 위생, 수면과 휴식, 바른 식생활 등 의식주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하여 발달을 촉진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도록 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위험한 상황을 알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른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안전생활을 습관화하도록 한다.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가 규칙적인 일과 속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며 생활하는 습관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02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한다.

- 가.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
- 나.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는 청결, 식습관, 수면, 휴식, 배변, 놀이, 교통안전 등의 기본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기본생활습관은 영아기 이후의 발달과 생활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기본생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

몸의 청결, 바른 식생활, 적당한 수면과 휴식 및 배변, 그리고 질병의 예방은 영아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영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므로 교사는 이 시기의 영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영아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어른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로 건강하고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아가 청결과 위생, 바른 식생활, 수면과 휴식 등 건강한 일상생활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경험한다.

영아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 영아는 위험한 상황을 잘 모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입기 쉽다. 특히 질식사고, 화상사고, 낙상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와 더불어 학대, 납치, 유괴 등의 사회적인 범죄도 영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사는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아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알고 조심해야 하며, 위험한 상황 시 어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익혀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행

복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도록 하며,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른의 지시에 따르도록 돕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기본생활 영역에서는 영아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하고 위험한 상황을 아는 것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기본생활 영역은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두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몸을 깨끗이 하기, 바르게 먹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질병에 대해 알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질병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알기, 위험한 상황알기를 통해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범주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깨끗이 하기 • 바르게 먹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 질병에 대해 알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놀이하기 • 교통안전 알기 • 위험한 상황알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건강하게 생활하기

가) 몸을 깨끗이 하기

‘몸을 깨끗이 하기’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초로서, 영아가 스스로 손과 몸 씻기와 이 닦기를 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몸을 깨끗이 하기		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시도한다.		
		스스로 이 닦기를 시도한다.		

‘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시도한다’는 영아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손과 몸을 씻으려고 시도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손 씻기는 질병의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차적인 활동이므로, 일과 속에서 손 씻는 방법, 손을 씻어야 하는 때를 영아에게 알려주고 영아가 스스로 씻으려고 노력해 보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이 닦기를 시도한다’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아 스스로 이를 닦으려고 시도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칫솔을 입 안에 넣어서 겨우 닦는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영아가 스스로 양치질을 하도록 격려하고 뒷마무리는 교사가 도와주도록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영아로 하여금 이 닦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결한 습관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

나) 바르게 먹기

‘바르게 먹기’는 영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먹고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으며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 등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바르게 먹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는다.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영아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일반식에 적응되어 성인과 동일한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균형있는 영양섭취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식생활에서도 나타나므로 영아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기는 음식에 대한 선호, 식사 예절, 위생적인 식습관 등 바른 습관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영아가 편식이 심하고 식욕도 고르지 않아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경험하게 한다.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먹는다**’는 영아가 수저와 식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소근육이 발달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손으로 먹거나 교사가 먹여주지 말고 영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해진 자리에서 먹는다**’는 영아에게 바른 태도로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영아가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서 바른 자세로 먹도록 지도한다.

다)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는 영아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길러서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정해진 곳에서 배변한다.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2세 영아는 오후 1회 정도 낮잠을 잔다. 교사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영아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영아의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고 같은 영아라도 그날의 활동량에 따라 수면 시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각자 독특한 수면 주기와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보호자로부터 영아의 개별적 수면 시간과 수면 습관을 파악하여 되도록이면 가정에서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가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한다’는 영아가 활동 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리적인 피곤을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피로가 쌓이면 생리적인 균형이 파괴되어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피로한 영아는 자발적인 활동이 줄고 칭얼거리거나 표정의 변화가 적어지는 등 행동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영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육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영아가 교사나 또래와 즐겁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놀잇감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영아의 개별적인 놀이 및 또래와의 놀이에도 참여한다.

‘정해진 곳에서 배변한다’는 처음부터 화장실에서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보육실의 정해진 곳에서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배변 훈련은 영아에게 힘든 과제로서, 척수신경이 발달하고 항문과 요도 조임근의 긴장력 조절 능력이 생겼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즉, 영아 스스로가 배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므로 영아를 변기에 5분 이상 앉혀 두거나 무리하게 배변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 무리한 배변 훈련은 영아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심리적 불안의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배변하는 장소는 늘 청결하게 해서 영아가 깨끗하고 즐거운 장소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화장실에서 배변한다’는 정해진 곳에서의 배변 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화장실로 장소를 옮겨 화장실에서 배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영아가 배변 욕구를 느끼면 교사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준다.

라) 질병에 대해 알기

‘**질병에 대해 알기**’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영아가 질병의 위험에 대해 알게 지도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질병에 대해 알기	질병의 위험을 안다.			

‘**질병의 위험을 안다**’는 영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질병의 위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질병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항력이 약한 영아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영아에게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 영아가 이를 알도록 하고, 몸이 아플 때 어른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안전하게 생활하기

가)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는 영아가 실내외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영아에게 실내외 놀이기구나 놀잇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놀잇감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거나 놀이기구를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사는 영아에게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는 영아가 실내외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요인들이 미리 제거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아에게 차길이나 도로변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알려주어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환경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황과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 알기

‘교통안전 알기’는 영아가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을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교통안전 알기	교통수단의 위험을 안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안다’는 영아가 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위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집 등하원시 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유익한 교통수단인 반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영아가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게 한다.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는 2세 영아는 주차되어 있는 차도 움직일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차의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교사는 영아로 하여금 교통기관의 위험을 알고 조심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도로에 혼자 나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위험한 상황알기

‘위험한 상황알기’는 영아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에 대해서 알고 조심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른의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위험한 상황알기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안다.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	
	위험한 상황 시 어른의 지시에 따른다.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안다’는 영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위험 요인에 대해 알게 하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 화재, 학대, 유괴 등의 비상 상황에 대해 알고, 이러한 상황의 위험에 대해 알도록 지도한다.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고 조심한다’는 영아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심할 수 있게 지도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이동능력이 커지고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취약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독과 안전교육이 제공될 경우, 주변 환경의 위험에 대해 알게 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아에게 주변 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인과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위험을 인지하고 조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 시 어른의 지시에 따른다’는 영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어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내용이다. 이 시기 영아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른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거나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 신체운동

01

성격

신체운동 영역은 2세 영아가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탐색하고 대소근육을 조절해 보며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감각 및 신체조절능력과 기본적인 신체운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2세 영아는 발달 수준이나 흥미, 요구에 적절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룬다.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을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나 신체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긍정적 신체 인식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영아기는 신체를 조절하고 균형감을 기르며, 기본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기본 운동능력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에 습득된 운동 능력은 후에 운동습관이나 태도에 영향을 주므로 영아의 놀이나 신체운동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체운동 영역은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범주들은 주로 신체인식 및 기본 운동 능력의 발달,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징된다. 신체운동 영역에서는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활동과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본운동능력과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생활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02

목표

감각, 신체조절 및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 가.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탐색한다.
- 나. 안정된 자세로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 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는 영아의 감각 능력과 신체 조절 및 기본운동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영아기(2세)는 감각능력이 보다 발달하여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활발하게 탐색하고 자신의 신체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발달시키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다 안정된 신체 균형력과 신체 조절능력을 기르고 이동운동과 제자리 운동 등의 기본운동 능력을 형성하여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신체운동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영역에서는 영아들이 일상생활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신체를 조절하며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감각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탐색한다.

영아기(2세)는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 시기 영아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며, 생후 24개월을 전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이 발달한다. 영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명칭과 신체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관심은 영아의 신체 발달로 이어진다. 따라서 영아가 감각기관의 활용을 통한 환경과 신체 움직임을 탐색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즐겁게 경험해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안정된 자세로 대소근육을 조절하고 기본운동 능력을 기른다.

영아기(2세)는 신체 조절력과 신체균형감이 보다 안정된 단계로 발달하며, 이동

운동 및 제자리 운동의 기본운동 능력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신체 조절과 이동능력 등의 발달을 토대로 영아의 탐색활동은 보다 더 활발해지며, 이는 신체운동 발달과 기초체력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긍정적 자기 인식과 사회 정서발달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영아가 보다 안정된 신체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대소근육의 조절을 포함한 신체조절능력을 증진시켜 기본운동 능력과 기초체력의 향상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영아기의 신체활동은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아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운동 능력을 키우며 신체운동 자체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아의 발달 정도와 능력에 맞는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영아가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취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영아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며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는 건강한 신체 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고 영아의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영아가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실외 활동이나 기구를 이용한 활동 등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신체운동 영역에서는 영아가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조절능력과 기본운동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는 영아가 감각능력과 감각기관 활용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는 영아가 움직일 때나 정지해 있을 때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절력을 기르고, 팔, 다리, 목, 허리 등의 대근육 조절력 및 눈과

손의 협응력과 조작능력 등의 소근육 조절력을 기르며, 몸의 축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변화되는 이동운동과 몸의 축이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제자리 운동을 통해 기본 운동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는 영아가 자발적이며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실내 및 실외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적인 신체운동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범주	내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능력 기르기 • 감각 기관 활용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균형 잡기 • 대근육 조절하기 • 소근육 조절하기 •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가) 감각능력 기르기

‘**감각능력 기르기**’는 영아가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하여 사물의 특성을 구별하는데 기초가 되는 감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사물의 차이를 변별해 낼 수 있는 경험을 하며 각각의 자극에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감각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감각능력 기르기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한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각경험을 통해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적 차이를 변별해내고 이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듣는 내용이다. 2세 유아는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감각적 차이에 집중하여 사물의 차이를 변별해 낼 수 있는 경험을 하며 각각의 자극에 다르게 반응해봄으로써 자신의 감각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나) 감각기관 활용하기

‘**감각기관 활용하기**’는 영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탐색함으로써 사물의 특성과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감각적 차이를 인식하고 사물의 특성을 구분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감각기관 활용하기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감각기관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감각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 감각적 차이에 따라 주변 환경에 있는 사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자신의 다양한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감각적,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물건을 감각을 활용하여 알아가는 활동은 영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을 탐색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활동이 된다.

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 부분을 탐색하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기본적인 신체 명칭이나 세부적인 신체 명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며 이 때 신체 각 부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함께 인식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는 영아가 기본적인 신체 각 부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기본적인 신체 명칭이나 세부적인 신체 명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기 시작한다. 영아들은 눈, 코, 입, 귀, 다리, 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 명칭을 알게 된다. 무릎, 손가락, 발가락 등과 같은 세부적인 신체 명칭은 영아 스스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듣고 가리키는 것은 가능하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기본적인 신체 각 부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알고, 아울러 신체 각 부위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을 돕는 내용이다. 2세 유아는 신체 각 부위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 이외에 몸 전체로 움직이는 구르기, 기기, 걷기, 뛰기, 균형잡기 같은 활동을 통해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2)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가) 신체 균형잡기

‘**신체 균형잡기**’는 영아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신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어른의 도움 없이 움직이면서 안정되게 신체의 균형을 잡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 균형잡기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한다.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한다**’는 영아가 마음대로 신체를 움직이면서 신체의 균형을 잡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2세 유아는 앉았다 서기, 계단 오르기,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기, 그네타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때 신체 여러 부위의 움직임을 조절하여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나) 대근육 조절하기

‘**대근육 조절하기**’는 영아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체의 대근육을 조절하여 신체 움직임을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신체 각

부위의 대근육을 조절하여 보다 원활한 신체 움직임을 발달시키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대근육 조절하기	팔, 다리, 목, 허리 등 움직임을 조절한다.	

‘팔, 다리, 목, 허리 등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영아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팔, 다리, 목, 허리 등의 신체 여러 부분을 조절하는 신체 움직임을 경험해보도록 함으로써 대근육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2세 유아는 좀 더 안정된 자세로 서고, 걷고, 앉고,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발달되고, 세발자전거타기 동작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아의 근육이 발달되어 대근육 조절이 좀 더 유연해진다.

다) 소근육 조절하기

‘소근육 조절하기’는 영아가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 시각능력의 발달을 기초로 눈과 손을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2세 영아는 눈으로 보면서 사물을 조작하는 동작을 통해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키우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소근육 조절하기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본다’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나 주변의 대상이나 사물의 특징을 시각 능력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인식하고 의도한 대로 소근육을 조절하여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소근육을 활용하여 사물에 어떤 행위를 가한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고 사물에 나타난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면서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라) 기본운동하기

‘기본운동 하기’는 영아가 몸의 축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움직이는 걷기, 계단오르기 등의 이동운동과 제자리에서 몸의 축을 변동하지 않고 움직여 보는 구부리기, 뺨기, 구르기, 흔들기 등의 제자리 운동에 참여하면서 운동능력

의 기초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이동운동과 제자리 운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기초체력과 기본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기본운동하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는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운동으로 영아가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동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이동 운동을 잘 이행할 뿐 아니라 걷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동 동작(예: 기어가기, 걷기, 옆 구르기, 계단 오르기 등)을 경험함으로써 기본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는 영아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중심을 수직·수평적으로서 움직이는 동작, 즉 서 있는 상태, 혹은 앉아있거나 누워서 팔과 몸통을 움직이는 모든 제자리 운동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구부리기, 뺨기, 허리 돌리기, 흔들기 등의 단순한 제자리운동을 시도함으로써 기본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3)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가)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는 영아가 신체활동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체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가 신체활동을 즐기는 습관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본다.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본다’는 영아가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여러 가지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리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는 근력과 체력 발달의 기초가 되는 균형있는 신체활동을 계획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바깥에서 신체활동 하기’는 영아가 실외 놀이터, 가까운 공원이나 숲 등의 자연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실외에서 실내와는 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마음껏 뛰어놀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환경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바깥에서 신체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활동을 한다’는 영아가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에 참여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의 경우 대근육 활동을 포함하여 1일 바깥놀이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날씨나 기온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여 원활한 신체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영아는 실외에서 걷고 뛰기, 간단한 기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등을 혼자서 혹은 또래들과 함께 즐기게 된다. 영아는 규칙적인 바깥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서발달과 신체운동능력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하기’는 영아가 간단한 영아용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대근육 운동 능력을 기르고,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기구 활용을 통해 거리, 높이, 길이, 빠르기에 대한 초보적인 감각을 경험하면서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하기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한다.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한다’는 영아가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여러 가지 영아용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거나 유아용 놀이 기구에 도전해 보면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기게 된다. 2세 영아들은 신체의 움직임이나 도전적인 신체활동을 좋아하지만 그들의 신체적 균형감이나 안전에 대한 대처 행동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가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해야 하며 활동할 때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넓은 공간과 충분한 시간, 위험하지 않은 신체활동 기구나 교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2세 영아는 규칙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아는 시기이므로 안전한 신체활동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III | 의사소통

01

성격

의사소통 영역은 2세 영아가 기초적인 어휘와 의사소통 체제를 습득한 후에 듣고 말하기의 구어 능력이 향상되고 읽고 쓰기에 관심이 증진되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구어와 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영역이다.

만 2세 영아는 발음을 하는 조음능력, 어휘력, 문장구성이 놀랍게 향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용하는 문장도 ‘빠방 가’처럼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짧은 문장 길이를 유지하다가 점차 세 단어, 네 단어를 조합하여 이전에 비해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말하는 양도 급격히 증가한다. 만 2세 영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건의 처음과 중간, 끝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성인과 대화를 할 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서너 번 정도는 같은 내용에 대한 대화를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엄마 가?’라고 영아가 교사에게 묻는다. 교사가 ‘응 엄마 가셨네, 이따 ○○이 데리러 다시 오실거야’라고 답하면 ‘엄마 빠방 가?(엄마가 자동차를 타고 다시 가느냐라는 뜻)’라고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2세 보육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짧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고 글자 형태를 끼적거리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 기초하여 영아의 말하기, 듣기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성인과의 의사 교환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때 성인은 영아의 의도를 민감하게 해석하고 시기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로운 분위기에서 영아의 의사 표현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는 영아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그림책과 친숙한 환경 인쇄물을 제공하고 끼적이기를 마음껏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02

목표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기른다.

- 가. 다른 사람의 말과 짧은 이야기 듣는 것을 즐긴다.
-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주고받기를 즐긴다.
- 다.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지며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진다.
- 라. 글자 형태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2세 보육과정은 영아가 기초적인 어휘와 의사소통 체제를 습득한 후 구어와 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조음능력, 어휘력, 문장구성 등 언어발달이 급진적으로 향상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하며 영아가 좋아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나 상징, 기호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아가 성인과 자주 대화를 교환하며 질문을 하는 것을 즐기도록 한다. 또한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다 점차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익숙한 환경 인쇄물의 그림과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며 의도를 가지고 끼적이는 경험을 통해 기초적인 구어능력과 문어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다른 사람의 말과 짧은 이야기 듣는 것을 즐긴다.

만 2세 영아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는 능력이 향상된다. 영아 자신의 어휘력이 많이 증진되었고 문장 이해 능력도 높아진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기초가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내용 뿐 아니라 눈길이나 표정, 손짓 그 밖에 주위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듣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만 2세 영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 역시 향상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유아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말하는 사람의 눈과 입에 시선을 고정하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거나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주고받기를 즐긴다.

말하기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이러한 말하기는 소리내기 즉 의미 있는 발음을 만들어 내는 것을 기초로 한다. 만 2세는 새롭게 듣고 알게 된 단어가 매우 급증하는 시기로 영아는 빠르게 습득된 단어를 음성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된다. 영아의 말하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향상되므로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와 자유롭게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에 관심을 가지며 글의 내용에 흥미를 가진다.

만 2세 영아는 그림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글의 내용에 대해 교사가 대화를 해주거나 읽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림책은 즐겁게 읽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책에 대한 영아의 흥미는 높아지고 이런 영아는 더 그림책을 접하려고 한다. 구어와 문어는 영아에게 그동안 얼마나 노출이 되었으며 얼마나 바람직한 질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그림책이나 환경 인쇄물을 접할 때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글자 습득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영아가 그림책과 관련된 대화를 재미있어하고, 그림책을 보는 행위 자체를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 글자 형태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문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쓰기에 대한 관심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끼적거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만 2세 영아의 경우, 그림과는 다른 짧거나 긴 직선이나 곡선을 사용하여 끼적이기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끼적인 것에 대해 마치 글자를 쓴 것처럼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글자 형태 끼적이기는 이후의 내용 쓰기에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다. 영아가 좋아하는 낱말, 관심 있는 글자나 경험한 사건 등에 대해 그림이나 끼적거리기로 표현하고 그것을 명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의사소통의 내용범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분된다.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서로 연속적인 행위로 밀접히 연결되며, 쓰면서 말한다거나 읽는 것을 듣는 것처럼 다른 내용범주들과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

‘듣기’는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소리나 짧은 문장, 짧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말하기’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낱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읽기’는 짧은 그림책과 주변의 친숙한 환경 인쇄물에 흥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쓰기’는 손과 팔, 눈의 협응이 더 잘 이루어지면서 끼적이기를 즐기는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범주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 • 짧은 문장 듣고 알기 • 짧은 이야기 듣기 •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하기 •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흥미 가지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끼적이며 즐기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듣기

가)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는 2세 영아가 그동안 들어왔던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이고 이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것과 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말소리에는 말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 있어서 언어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말소리 구분하여 듣고 의미알기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한다.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인다’는 사람마다 음성이 다르며, 같은 사람의 말소리라도 소리의 크기나 빠르기 등의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영아가 인식하고 이에 흥미를 보이는 것이다.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처음에 발음에 흥미를 보이던 영아가 조금씩 더 관심을 보이며 주의 깊게 낱말의 발음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때 교사는 말소리에 담긴 다양한 감정을 영아가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귀에다 작은 소리로 말을 해주거나, 좀 더 보통의 소리로 직접 말을 해주며 낱말의 발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말소리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영아가 말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아내며,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큰소리와 작은 소리, 빠른 소리와 느린 소리 등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할머니, 선생님 등의 말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면서 누구의 말소리인지 이야기하고, 눈을 감고 말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다.

나) 짧은 문장 듣고 알기

‘짧은 문장 듣고 알기’는 만 2세 영아가 두세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며 이러한 것이 점차 향상되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짧은 문장을 듣고 그 문장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	1수준	2수준
짧은 문장 듣고 알기	낱말을 듣고 친숙한 사물과 사람을 찾아본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친숙한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한다.	

‘**낱말을 듣고 친숙한 사물과 사람을 찾아본다**’는 단순한 낱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찾아보면서 어휘를 습득해 가는 내용이다. 만 2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호기심을 보이며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관심이 많다. 교사들은 대명사보다는 ‘책상에 있는 동그란 컵으로 마실까’ 등과 같이 눈앞에 있는 사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영아가 그 사물과 낱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낱말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는 친숙한 낱말을 듣고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생소한 낱말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그 사물을 가리키거나 보이며 뜻과 연결되도록 한다.

‘**친숙한 짧은 문장을 듣고 반응한다**’는 성인이 말한 짧은 문장을 듣고 그것에 따라 영아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말한다. 생후 30개월 전후의 영아들은 어머니 교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교사가 하는 행동이나 말소리를 흉내 내려고 하고, 교사가 요구하는 것을 즐겁게 따름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한다. 교사는 즐거운 상황에서 짧은 문장을 듣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를 즐겁게 들으며 춤을 추다가 멈추도록 한다. 영아가 노래에 익숙해지면 그대로 멈춰라 대신에 ‘의자에 앉아라, 인형을 안아라.’ 등 다양한 요구어로 바꾸어 주어 즐겁게 반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다) 짧은 이야기 듣기

‘**짧은 이야기 듣기**’는 만 2세 영아가 운율이 있는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짧은 구절의 말을 즐겨 듣는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짧은 이야기 듣기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는다.	

‘**짧은 이야기와 노랫말 등을 즐겁게 듣는다**’는 2세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짧은 이야기와 운율이 있는 노랫말을 즐겁게 들으면서 좀 더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의 주의집

중을 길게 유지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며 노랫말을 들려준다. 특히 영아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나 자주 들었던 친숙한 노래는 즐겁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가사를 바꾸어 영아의 이름을 넣어 불러준다. 그림이 거의 대부분인 짧은 이야기는 그림을 매개로하여 영아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내용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영아가 즐겁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라)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기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기’는 만 2세 영아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응시하기를 넘어서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들으며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능력을 기른다.

내용	1수준	2수준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기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는 영아가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듣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양방향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사는 영아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here)에서 지금(now) 벌어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다양한 억양으로 말을 하여, 영아가 이를 주의 깊게 보고 들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면 종이벽돌블록을 사용하여 하나하나 높이 쌓아서 앉은키만큼 되어갈 때 블록의 높이와 영아의 앉은키를 손으로 짚어가며 ‘이렇게 높이 쌓았네! 하나하나 쌓았구나’(블록을 하나하나 짚는 듯이 손으로 가리키며 운율을 넣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영아가 주의 깊게 보고 들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영아의 놀이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고, 영아가 교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있어서 다른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

2) 말하기

가) 낱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낱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만 2세 영아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낱말을

직접 발음해 보고, 새롭게 경험한 낱말에 관심을 지속하며 한 두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친숙한 상황을 말해보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낱말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눈앞에 보이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발음해본다.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일이나 친숙한 상황을 한 두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본다.	

‘**눈앞에 보이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발음해 본다**’는 어휘폭발기를 넘어선 영아가 자신이 보고 있는 친숙한 사물의 이름을 직접 발음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영아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영아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 한다. ‘아끼엄(아이스크림), 꼬이(고기)’ 등과 같이 발음이 분명치 않아 교사들을 난처하게도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생물학적으로 혀와 입천장의 구조가 기능적으로 조화롭지 못하여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아의 잘못된 발음을 지적하고 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사는 영아의 감정과 생각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발음으로 다시 한 번 들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고기가 맛있어?”와 같이 영아가 낸 발음의 단어를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다시 정확히 발음으로 들려주도록 한다.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는 영아가 일과에서 자주 들었던 낱말을 발음해 보는 경험을 말한다. 교사는 영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응응’이라고 불분명하게 발음할 때, “무엇을 줄까?”, “어떤 것을 갖고 싶어?” 등과 같이 다시 질문을 하여 영아가 그 낱말을 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경험 많은 교사나 부모가 영아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좀 더 과장된 억양을 사용하고, 단어나 음절을 불러서 길고 분명하게 말하거나 조금은 높은 톤으로 말을 강조하는 등의 특성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말하기는 영아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바른 발음을 익히고, 낱말을 말하도록 시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의 경험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낱말에 영아가 점차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영아의 낱말은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영아의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새로운 낱말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영아는 알고 싶은 단어도 많아져서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곧잘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낱말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교사가 묻기보다 영아가 물었을 때 길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도록 한다.

‘일상생활의 반복적인 일이나 친숙한 상황을 한 두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본다’는 영아가 한 낱말, 두 낱말로 된 문장을 사용하다가 간단한 문장으로 반복적인 일이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짐을 나타낸다. 영아는 낱말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하는 능력도 발달해 간다.

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는 만 2세 영아가 표정,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두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하기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두 낱말로 말해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본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만 2세 영아가 말소리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나 아직도 표정이나 몸짓을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두 낱말로 말해본다’는 표현어휘가 증가되는 이 시기의 영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로 명사나 동사 한 두 낱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이 시기의 영아는 사물에도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변의 여러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을 자주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what-질문’ 즉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교사는 그 사물의 이름을 여러 번 알려주고 영아가 그 이름을 따라할 때 격려해 준다. 예를 들어, ‘응, 그것은 트럭이야.’, ‘트럭?’, ‘그렇지, 트럭’이라고 말해준다. 이 때 그 사물이 가진 특징을 함께 말해주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트럭이 부~웅 부~웅’처럼 그 사물에 적합한 의태어, 의성어를 맞게 들려주면 좋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낱말이나 짧은 문장으로 말해본다’는 한 두 낱말을 사용하던 1수준의 2세 영아가 점차 조사나 형용사, 동사 등을 구성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는 내용이다. 만 2세 영아기는 놀랄 만큼 어휘가 풍부해지며 이러한 어휘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요구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늦더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아가 손가락 가리킴이나 단발음, 몸짓, 표정으로 원하는 것을 전달하려 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기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기’는 의사소통 구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서 말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기	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을 주고받는다.	

‘말할 순서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을 주고받는다’는 영아가 자신이 말할 순서를 알고 그 순서에 맞게 듣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주고받는 의사소통 구조에서 자신의 말할 순서를 아는 것은 영아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말하는 상대방을 잘 응시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 등에 대한 해석도 추가되어 상대방이 전달한 말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읽기

가)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흥미 가지기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흥미 가지기’는 2세 영아가 그동안 보아왔던 친숙한 그림과 환경 인쇄물에 흥미를 가지고 읽는 흥미를 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면 집중하여 듣는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1수준	2수준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흥미 가지기	그림책과 환경 인쇄물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친숙한 그림과 환경 인쇄물을 보고 읽는 흥내를 내 본다.	
	선호하는 그림책들을 읽어주면 집중하여 듣는다.	

‘친숙한 그림과 환경 인쇄물을 보고 읽는 흥내를 내 본다’는 2세 영아가 자주 접해왔던 광고지, 과자 봉지, 기저귀 브랜드, 우유 이름 등 그림과 글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환경 인쇄물에 흥미를 갖고 성인이 말을 하였던 것 그대로 따라 흥내 내는 것을 말한다. ‘○○우유를 따라줄까?’라고 성인이 말하면 영아는 ‘○○우유’라고 말하며 그 우유곽을 읽는 흥내를 낸다. 이는 2세아가 그 우유에는 이름이 있으며 이름은 그림과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치약 이름의 그림이나 선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글자 모양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성인처럼 읽기는 어려운 시기이므로, 교사는 영아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환경 인쇄물의 모양에 대해 친숙감을 갖도록 지원한다.

‘선호하는 그림책들을 읽어주면 집중하여 듣는다’는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접하고, 그림이나 읽어주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만 2세의 영아는 교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고, 책은 재미있는 어떤 것이 펼쳐진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교사는 그림이 간결하면서 내용이 친숙한 짧은 동화의 즐거움을 내용 그대로 읽어주기보다 영아와 대화하듯이 묻고 대답하며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사는 매일 영아에게 개별적으로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을 마련하되, 책 선택은 영아에게 주도권을 주고, 책장을 넘기는 것 역시 영아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준다. 영아는 실물이나 놀잇감, 사진 등에서 경험하여 사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예: 강아지, 자동차 등)이 나오는 그림책을 좋아하므로 주제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책들을 계속하여 언어영역에 비치하여 둔다. 만 2세 영아들이 좋아하는 책은 되풀이해서 영아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좋다.

4) 쓰기

가) 끼적이며 즐기기

‘끼적이며 즐기기’는 만 2세 영아가 손가락 사용이 유연해지고 손목의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쓰기 도구를 가지고 힘을 주어 의도적으로 끼적이고, 자기 이름을 끼적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끼적이며 즐기기	의도적으로 끼적인다.	
	자기 이름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의도적으로 끼적인다’는 영아가 그동안 무작정 끼적거리기를 하다가 2세가 되면서 끼적거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붙이거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끼적이기를 하는 내용이다. 만 2세 영아는 끼적거리기를 좋아하여, 기회가 있으면 뭐든지 어디든지 끼적거린다. 교사는 영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선을 긋고 자신이 끼적거린 그림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영아에게 “이게 뭘까? 뭘 그린거야?”라고 질문을 하여 영아가 명명하도록 격려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유롭게 끼적거리기를 하도록 놀이실의 한 쪽 벽면이나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준다. 또 영아의 끼적거리는 행동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 영아가 끼적거린 종이에 어떤 내용을 끼적거렸는지 적어주어 글자를 쓰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 이름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가장 관심을 갖는 자신의 이름을 끼적이며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은 불리우거나 부르는 것인 동시에 여기 저기 사물 위에 쓰이는 것이기도 하다. 영아의 실내화 위에도 자기 이름이 매직으로 쓰여 있고, 그림을 그린 후에도 교사가 영아 이름을 써준 후, 자기 이름과 사진이 붙여진 개별 사물함에 그림을 가져다 놓도록 격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은 영아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영아는 다른 무엇보다 이름을 쓰는 끼적이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IV | 사회관계

01

성격

사회관계 영역은 2세 영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가족, 또래,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생활해보는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영역이다.

영아기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선호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스스로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소중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영아기부터 토대를 갖추어 유아기 이후 평생 동안 사회관계의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영아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아는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도 위로와 공감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아는 자신의 가족을 인식하고 가족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게 된다. 또한 영아는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또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 하게 된다. 영아는 점차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에 익숙해지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영아는 정리정돈, 차례 지키기, 인사하기, 약속 지키기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기’, ‘더불어 생활하기’의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내용 범주는 영아가 자신을 보다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내용 범주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공감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며, 마지막 내용범주는 영아가 가족, 또래, 자신이 소속된 반 등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 및 질서, 예절, 약속 지키기 등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봄으로써 자신의 고유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적절하게 나타내도록 지원해주며, 영아가 가족, 또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과 즐겁고 유쾌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02

목표

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가. 자기 존중감을 형성한다.

나. 자신의 감정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

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래, 교사와 즐겁게 지내며 간단한 규칙 등을 지킨다.

2세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자신을 알고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관계맺음의 기초를 경험함으로써 사회관계 형성의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2세가 되면 자신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보일 줄 알게 된다. 또한 내 가족, 또래, 자신이 속한 집단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애정을 느끼고 즐겁게 교류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익히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영아의 선호와 자발적인 선택을 중시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이나 또래 등 친숙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 자기존중감을 형성한다.

영아는 외부 대상보다는 먼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개체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고 ‘나’, ‘내 것’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도움받아 하던 것을 스스로 하려고 고집하는 등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영아의 자기 인식을 긍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아의 자기 존중감을 기르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보고, 자신의 선호를 표현해보며,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즐겁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 자신의 감정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

영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분화된 기본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관계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영아의 정서지능이나 지적 능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에 반응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에 반응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 가족을 사랑하고 또래, 교사와 즐겁게 지내며 간단한 규칙 등을 지킨다.

영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점차 자신의 친숙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아는 시기이다.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영아가 사회적 능력을 키워가는 데 기초적인 토대가 되며 이후의 사회성 발달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영아는 가족, 또래, 교사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원만하게 함께 지내며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토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아가 가족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들이 있는 곳에서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며 정리정돈, 질서 지키기 등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내용범주

사회관계에서는 자신의 특성을 보다 발달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분화된 기본 정서를 알고 반응하며 가족, 또래, 교사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기초 능력과 사회적 가치를 익히도록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는 영아가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도 반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영아가 자신의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함께 놀 줄 알고, 자신이 속한 반이나 교사를 인식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구별하기 • 좋아하는 것 해보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가족 알기 • 또래와 관계하기 •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 사회적 가치를 알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가) 나를 구별하기

‘**나를 구별하기**’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함으로써 자신이 독특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신체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점차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 주요한 신체 특징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나를 구별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구별한다’는 영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사의 얼굴을 가리킬 수 있고, 또래의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좋아하는 것 해보기

‘좋아하는 것 해보기’는 영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선호를 구분하며,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보고, 즐겁게 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좋아하는 것 해보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본다.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 본다.	스스로 선택한 놀이나 놀잇감을 즐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본다’는 영아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주목해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독립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이 고유한 존재이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토대를 갖추게 된다.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본다’는 영아가 자신의 선호와 특성에 따라 좋아하는 놀이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아의 선택을 존중하고 영아의 자신감을 높여주며 영아 스스로 자신에 대해 소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선택해보고 놀이를 반복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영아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2)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가)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는 영아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정이나 소리, 몸짓 뿐 아니라 적합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즐거움이나 기쁨, 슬픔이나 두려움, 무효함 등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을 간단한 말이나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나의 감정을 나타내기	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	

‘여러 가지 감정을 말과 행동을 나타낸다’는 영아가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이에 적합한 말로 표현하거나 필요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기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울거나 떼쓰거나 때리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 선생님을 부르거나 선생님에게 와서 간단하게 말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영아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 가령 ‘기분이 좋구나’ ‘화났니? 속상하구나’ 등과 같이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는 영아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 화남, 두려움, 아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을 기르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기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반응을 보인다’는 영아가 상대방의 감정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하며 돕거나 위로를 하는 등의 초보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여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영아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함께 느끼며 공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더불어 생활하기

가) 내 가족 알기

‘내 가족 알기’는 영아가 주변의 친숙한 사람 중에서도 보다 특별한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있음을 알고 가족에게 소속감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출생부터 가족의 일원으로서 양육자와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되며, 점차적으로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과의 경험으로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영아는 자신에게 가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알게 되는 등 가족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내 가족 알기	내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내 가족에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특별한 감정을 갖는다.

‘내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영아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음을 알고 가족원에게 소속감을 느끼며 기쁨이나 즐거움 등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적절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자기 가족의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짚어낼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한 일상의 일들을 간략히 말할 수 있고, 헤어진 가족원을 다시 만났을 때 기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된다.

‘내 가족에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감정을 갖는다’는 영아가 자신의 가족에게 애정과 소속감, 자랑스러움 등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

는 내용이다. 영아는 가족원에게 애착과 유대감을 가지며, 특히 친숙한 가족원에게는 미소나 몸짓, 신체적 접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슬프거나 힘들 때 위로를 구하기도 한다. 영아는 일상적인 가족역할 놀이, 놀잇감 전화기로 어머니 아빠에게 전화하는 놀이, 어머니 아빠의 얼굴을 꾸미는 활동, 주말동안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되살려보는 활동 등을 통해 가족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나) 또래와 관계하기

‘**또래와 관계하기**’는 영아가 또래와 함께 생활하고 놀이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에게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래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내용이다. 영아는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가 매우 미흡하지만 점차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인지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조정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우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또래와 관계하기	또래에게 관심을 보인다.	또래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한다.
	또래의 이름을 안다.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영아가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또래의 말과 행동, 또래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또래가 나타내는 몸짓, 행동, 감정 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고 또래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영아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초보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래의 모습과 행동을 모방한다**’는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과 신체적 특성이나 발달수준이 유사한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며 이에 대해 교사의 적절한 반응과 지원을 받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이 관심을 둔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여 나타내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익히게 된다. 교사는 자신이 영아에게 하는 것처럼 영아도 다른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임으로써 영아가 모방행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래의 이름을 안다**’는 영아가 보육실에서 자신과 함께 일과를 보내는 또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교사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놀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또래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또래의 이름을 알게 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또래도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영아는 이를 통해 또래가 자신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고유한 존재임을 기본적으로 깨닫게 된다.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한다**’는 영아가 또래와 함께 한 장소에서 나란히 서로 다른 놀이를 하는 경험을 통해 또래관계를 익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또래와의 놀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직 나란히 서로 다른 놀이를 하지만 점차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여 또래가 함께 어울리며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또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다.

다)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는 영아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어느 보육실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신의 담임교사는 누구인지 알며, 자기 반의 하루일과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신이 속한 집단 알기	자신이 속한 반과 교사를 안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자신이 속한 반과 교사를 안다**’는 영아가 자신이 소속된 보육실과 교사를 알고 소속감을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보육실에서의 하루일과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이 속한 반의 이름과 위치를 알고, 자신의 담임 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영아가 소속된 보육실에는 보육실의 반 이름, 교사나 보육실 또래들이 함께 한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보육실의 물리적 환경은 영아가 선호하는 놀잇감이 여러 개 동일한 것으로 비치되어 다툼을 예방해주고 있다. 영아는 보육실에서의 생활을 통해 안정적이고 즐거운 단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반의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영아가 자신이 속한 보육실에서의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가 소속된 보육실에는 기본적인 생활규칙이 있으며, 규칙적인 하루일과가 진행되고 있다. 영아는 자신이 선호하는 놀잇감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며, 보육실의 하루일과를 통해 자신의 발달 수준과 개인적 흥미에 맞는 활동을 즐겁게 경험하게 된다.

라) 사회적 가치를 알기

‘**사회적 가치를 알기**’는 영아가 정리정돈, 순서지키기, 인사하기, 약속 지키기 등의 일상경험을 통해 질서, 예절, 규칙 등 사회적 가치를 익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는 자신의 하루일과에서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정리해본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순서를 기다린다거나 사람과 만나거나 헤어질 때는 바른 태도로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정한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경험을 해본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사회적 가치를 알기	도움 받아 물건을 정리한다.	스스로 물건을 정리한다.
	자기 순서를 안다.	순서를 기다린다.
	바른 태도로 인사한다.	
	간단한 약속을 지킨다.	

‘**도움 받아 물건을 정리한다**’는 영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평소 그 물건이 놓여진 자리에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놀았던 놀잇감이나 자신의 개인 물품, 매일 사용하는 식기 등 친숙한 물건을 제 자리에 정리해 넣을 수 있다.

‘**스스로 물건을 정리한다**’는 영아가 자신이 사용한 친숙한 물건을 스스로 제 자리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아가 자신이 사용한 놀잇감을 스스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흥미영역에는 놀잇감의 사진을 코팅하여 붙여놓고, 영아의 개인 사물함에는 영아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놓는다.

‘자기 순서를 안다’는 영아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필요할 경우 순서를 기다려야 하며, 자기 순서가 되기 위해서는 앞의 사람이 먼저 일을 끝내야 자기 차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거나, 바깥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끝내고 다음 사람이 시작하게 되며 자기에게 순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서를 기다린다’는 영아가 여러 명이 동시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앞의 사람이 먼저 끝내고 자기 순서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기에게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스스로의 욕구를 참고 기다릴 수 있다.

‘바른 태도로 인사한다’는 영아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고 예의바르게 인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함으로써 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즐거운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친숙한 사람과 헤어질 때에는 공손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때 지켜야 할 바람직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한 약속을 지킨다’는 영아가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간단한 규칙이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기꺼이 지키고자 노력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간단한 약속, 가령 식사를 한 후에는 칫솔질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든지,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빼앗지 않는다든지 등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지켜야 할 약속을 함께 만들되 이때 영아의 발달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V | 예술경험

01

성격

예술경험 영역은 주변 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즐기며 리듬이나 노래, 움직임, 자발적인 미술활동, 모방행동을 자유롭게 시도해 봄으로써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기 위한 영역이다.

영아기는 주변 생활 속에서 예술적 요소들을 탐색해가면서 예술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지각능력을 발달하고 심미적 태도를 증진시켜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간단한 소리를 만들다가 점차 리듬 있는 소리를 만들며 음악에 맞추어서 리듬을 탐색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몸 움직임이나 미술, 모방이나 상상놀이를 통해서도 단순한 심미적 요소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탐색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영아는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나간다. 이를 통해 영아는 표상능력을 발달시키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아가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는 내용이며, ‘예술적 표현하기’는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 움직임,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모방이나 상상놀이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감상하기’는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 나는 소리, 모양이나 색 등에 주의를 주고 눈여겨보도록 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영아가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며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즐기도록 한다. 나아가 생활 속의 소리나 움직임, 친근한 음악과 춤을 관심 있게 보고 즐기며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데 중점을 둔다.

02

목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긴다.

- 가. 주변 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흥미롭게 탐색한다.
- 나.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 움직임,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모방이나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 다. 주변의 환경과 자연 및 다양한 표현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 있게 보고 즐긴다.

예술경험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자기 주변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며 소리, 노래, 움직임, 미술활동, 상상놀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형성하고 기초적인 감성발달을 목표로 한다.

영아기는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며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고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므로써 향후 창의성 발달에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 환경에 대하여 단순한 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 또한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고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즐길 줄 아는 태도를 갖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주변 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흥미롭게 탐색한다.

영아기는 신체조절이 원활해지면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 사물에 대하여 선, 모양, 색, 움직임, 흐름 등의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며 성장해 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즐기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가 자연이나 사물에 대하여 단순한 요소 탐색에서 시작하여 복합적인 요소로, 익숙한 것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것으로 경험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심성과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한다.

나. 간단한 리듬이나 노래, 움직임,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모방이나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영아기는 선입견이나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 생각

등을 노래와 움직임, 미술활동, 상상놀이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을 즐기는 시기이다. 영아가 리듬있는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노래를 부르고 움직임으로서 리듬감 발달과 창의적인 표현능력 증진에 중요하다. 또한 대소근육 조절과 기본 운동능력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도구를 조작하거나 활용하여 리듬감 있는 움직임과 미술로 표현해 봄으로써 풍부한 정서발달과 자유로운 표현능력 증진에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영아의 일상을 반영한 모방행동과 상상놀이는 표상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아가 다양한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표현하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영아의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도록 한다.

다. 주변의 환경과 자연 및 다양한 표현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 있게 보고 즐긴다.

영아기는 예술작품보다는 자신이 일상에서 익숙하게 마주하는 환경과 자연, 자신과 또래의 표현과정에서 예술적 요소를 찾아보며 감상하기를 즐기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주변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돌려 노래, 춤, 자연물 등을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과 또래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며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요소를 감상하다 점차 복합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자신의 작품에서부터 또래의 작품 그리고 익숙한 자연물과 설치물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 등으로 감상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을 풍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과 타인의 표현을 존중하면서 심미감 발달과 감상능력을 계발하는 데 기초를 이루도록 한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 범주

예술경험 영역은 2세 영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의 환경에서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고 간단한 리듬, 노래, 움직임, 미술활동, 모방 및 상상놀이를 표현하고, 주변의 환경과 자연 및 다양한 표현에서 예술적 요소를 감상하고 즐기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예술경험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며, 내용범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로 표현하기 •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 모방과 상상놀이하기
예술 감상하기	• 아름다움 즐기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아름다움 찾아보기

가)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는 우리가 주변 환경 중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서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들에 새로운 주의를 기울이며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술적 탐색은 익숙한 것에서 새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며 변화와 차이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의 탐색능력이 증진되고 심미감 및 인지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예술적 요소 탐색하기	주변 환경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	

‘주변 환경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동식물, 자연물, 사람, 악기의 소리와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탐색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시각과 청각이 발달하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움직임에 대하여 차이를 발견하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심미감 계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에서 색, 모양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들로 가득 차있는 일상에서 이전 시기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탐색하는 내용이다. 영아가 시각적으로 다양한 색과 형태를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점차 선호하는 모양이나 색이 나타난다. 이러한 선호와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유롭게 반복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예술적 표현하기

가)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로 표현하기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로 표현하기’는 영아가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신체, 목소리, 리듬악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듦으로써 리듬감 발달과 음악적 표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기는 의사표현을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비언어적인 방법과 언어적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적 표현을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영아의 표현능력과 감성능력이 계발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리듬 있는 소리와 노래로 표현하기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른다. 신체, 사물, 리듬악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든다.	

‘친근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영아가 일상에서 자주 듣는 노래를 좋아하고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가 이를 따라 부르며 노래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감정과 리듬을 실어서 표현할 줄 알고 노래말을 표현하며 즐기는 시기이므로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감정 표현 및 리듬감 발달과 언어 발달은 증진 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는 다양한 감정을 발산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 사물, 리듬 악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과 소리를 만든다’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나 악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춤추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냄으로써 리듬감을 발달시키고 창의적 표현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영아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들은 자발적으로 소리를 만들거나 신체나 악기 및 사물로 리듬감 있는 소리를 만들며

강약, 빠르기, 음색 등 음악적 요소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움직임으로 표현하기’는 영아가 노래나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하거나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신체 리듬감을 계발하고 도구를 조작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기는 신체 각 기관의 협응이 일어나는 시기로 점차 신체운동 능력이 발달하면서 리듬이나 음악에 맞춰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신체 리듬감과 균형감을 발달시키고 심미적 표현 능력을 증진 할 수 있다.

내용	1수준	2수준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노래나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한다.	

‘노래와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운율 있는 소리나 노래를 듣고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함으로써 리듬감과 창의적 표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기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시기로 영아가 간단한 움직임으로 표현하다가 점차 창의적인 춤으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놀이 중에 영아의 흥미를 끄는 움직임이 있으면 영아와 항상 즐겁게 표현하도록 하고 영아가 편안한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에서 춤추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아 나뭇대로의 감성발달과 표현능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한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신체조절능력과 리듬감을 증진시키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소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증진되고 눈과 손의 협응이 원활해지는 시기이므로 주위에 있는 간단한 도구나 재료를 활용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짧은 스카프, 짧고 가벼운 천 등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영아가 움직임의 요소나 동작에 관심 가져서 신체조절 및 창의적 표현능력을 증진하도록 한다.

다)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는 영아가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기와 만들기를 하며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아의 표현능력을 증진시키고 소근육 조절 능력을 신장시키며, 자신의 결과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성취감을 높인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발적으로 미술활동하기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룬다.	

‘자발적으로 그리기, 만들기를 한다’는 영아가 미술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고 즐기며 그리기와 만들기를 하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시도하는 시기이므로 영아가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미술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며 미술경험 과정을 즐기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기르고 자발적으로 그리기를 시도함으로써 자신만의 표현과정을 즐기도록 한다.

‘간단한 도구와 미술재료를 다룬다’는 영아가 미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용, 만들기용 도구와 재료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기는 손 조작이 미숙하고 힘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나 간단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함으로써 성취감을 갖고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충분한 공간에서 조작이 쉬운 재료나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술활동 과정에서 영아가 도구와 재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영아는 창의적 표현을 경험하고 신체조절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라) 모방과 상상놀이하기

‘모방과 상상놀이하기’는 영아가 자신과 친숙한 사물의 모양과 동물 또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며 즐기고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상호작용한 경험을 상상놀이로 재현하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인지적 표상이 발달하는 시기로 대체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징을 표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는 모방행동을 반복하면서 점차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 내며 상상놀이를 하고 향후 다양한 가작화 요소를 표현하며 발달해 간다. 이를 통해 영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나가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며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언어 및 인지발달을 증진시켜 나간다.

내용	1수준	2수준
모방과 상상놀이하기	모방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즐긴다.

‘모방행동을 놀이처럼 즐긴다’는 영아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모방 행동을 하다가 좀 더 다양한 모방 행동을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모방과 상징을 통해 표상능력과 창의적인 표현을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중에서 자연 현상, 동물이나 사람의 움직임, 소리, 행위 등에 관심을 가지고 특징을 기억해 두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모방을 통해 재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모방행동을 자주 반복하기 보다는 즐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영아는 인지적인 표상능력을 증진시키며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를 늘려가고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키워간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즐긴다’는 단순한 모방행동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간단한 사건의 각본을 상상놀이로 재현하면서 즐거워하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일상과 관련하여 간단한 행동들을 연결시키며 상상놀이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엄마가 화장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놀이나 인형에게 우유 먹이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경험을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는 상상놀이를 통해 특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일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가작화 요소를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3) 예술 감상하기

가) 아름다움 즐기기

‘아름다움 즐기기’는 영아가 자연이나 생활의 소리, 움직임, 친근한 음악과 춤에 관심을 주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유명한 예술작품 보다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나 음악, 움직임 등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듣고 보는 것을 즐기는 시기이다. 영아가 좀 더 선호하는 것, 좀 더 호기심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영아의 심미감과 감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지발달과 관련된 탐구적 태도를 기르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내용	1수준	2수준
아름다움 즐기기	자연이나 생활의 소리나, 움직임, 친근한 음악과 춤을 관심 있게 듣거나 본다.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	

‘자연이나 생활의 소리나 움직임, 친근한 음악과 춤을 관심 있게 듣거나 본다’는 영아가 다양한 몸 움직임이나 행동, 운율이 있는 친근한 노래와 연주곡, 다양한 자연의 소리나 움직임 등에 관심을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아의 감성계발을 신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영아기는 일숙한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나 소리, 음악의 요소 등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느낌을 계발하고 표현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 바람 소리, 빗방울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움직임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통해 색, 모양, 움직임을 찾아보며 즐기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는 감각 인식능력을 증진하고 영아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음악 및 움직임의 요소에 관심을 유지하며 자기 나름의 감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는 영아가 예술 감상 경험을 할 때 자주 접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이나 생활 속의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실외놀이나 견학, 산책 등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연과 사물 속의 미

술적 요소를 접하고 놀이로 활용함으로써 심미감의 기초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자연의 변화와 사물의 상태에 대한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변 환경을 흥미롭게 경험하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는 심미적인 감각을 계발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

‘자신과 또래가 표현한 노래, 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즐긴다’는 영아가 자신이 만들어 낸 다양한 표현들과 또래가 표현한 결과물을 통해 감상의 기회를 가지며 예술 감상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기는 새롭고 생소한 소재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소재를 통해 보다 풍부한 감성을 계발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자신의 표현물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표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심미감을 느끼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아 자신과 또래의 표현물이나 작품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감성 계발 뿐 아니라 언어능력과 자신감도 증진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VI | 자연탐구

01

성격

자연탐구 영역은 영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탐색하기를 즐기며 탐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상황과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2세 영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하고 반복적인 탐색하기를 즐기며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알고자 한다.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경험하면서 인식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주변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하게 된다. 2세 영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궁금해 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발달 수준에 맞는 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 영아들은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직접 조작해보고 감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탐색하기를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는 유아기로 잘 이행되어, 미래의 지식산업 기반사회에 필요한 논리·수학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세 개의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적, 과학적 탐구하기는 영아가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가는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영아가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자 할 때 호기심을 유지하며 탐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발달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초 수학적, 과학적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02

목표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주변 환경에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기는 태도를 기르고,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주변 환경에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긴다.

- 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다.
- 나.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상황을 인식한다.
- 다.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한다.

2세 영아기는 주변 세계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면서, 점차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개인적 의미를 구성해가는 탐색 수준으로 발달해 가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2세 영아는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즐기는 목표를 가진다.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관심 있는 사물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적인 경험을 통해 수학적, 과학적 기초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한다.

2세 영아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하게 탐색을 반복해 보는 시기이다.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하다. 탐구하는 태도는 논리·수학적 사고 및 과학적 탐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세 영아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호기심을 해결해 간다. 따라서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며,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스스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학적 상황을 인식한다.

2세 영아기는 주변 사물과 상황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량을 인식하고, 공간과 도형, 차이,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 시기이다. 2세 영아는 반복적인 탐색과 적극적으로 다양한 조작으로 주변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수학적 상황을 인식하고,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기초지식을 구성해간다. 따라서 2세 영아가 수학적 탐구를 통해 수량을 인식하고, 공간과 도형, 차이,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해 보는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탐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한다.

2세 영아기는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호기심에 차서 만져보고 움직이거나 떨어뜨려보고, 누르고, 집어넣고, 찌보고, 굴리고, 차보고, 올라서고, 던져보고 굴러보고 섞어보는 등의 다양한 탐색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2세 영아가 자신의 탐색 행동과 결과를 관련지을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 주거나, 자발적이고 다양한 탐색을 통하여 물질의 변화과정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면,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과학적 기초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구성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2세 영아가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며,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하고, 날씨를 감각으로 느끼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구성

가. 내용범주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2세 영아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와 환경을 탐구하는 태도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과학적 상황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학적 탐구하기’는 수량 인식하기, 공간과 도형에 관심 가지기, 차이에 관심 가지기,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 가지기, 구분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 탐구하기’는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자연을 탐색하기, 생활도구 사용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범주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 가지기 • 반복적 탐색 즐기기
수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인식하기 • 공간과 도형에 관심 가지기 • 차이에 관심 가지기 •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 가지기 • 구분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 자연을 탐색하기 • 생활도구 사용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가) 호기심 가지기

내용	1수준	2수준
호기심 가지기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호기심을 가진다.	

‘호기심 가지기’에서 ‘주변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을 가진다’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주위의 여러 가지 사물과 주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 하며,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신기해하며 알고자 한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체를 움직이고 공간을 이동하며, 감각과 소근육도 보다 발달되어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한다. 영아는 호기심이나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켜봐주고,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고,

궁금해 하는 것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상호작용 해 주고, 호기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해 가게 된다.

나) 반복적 탐색 즐기기

내용	1수준	2수준
반복적 탐색 즐기기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긴다.	

‘반복적 탐색 즐기기’에서 ‘관심 있는 사물을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관심 있는 사물을 오감각과 대소근육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기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오감각과 사물에 대한 반복적인 탐색을 즐긴다. 밀가루 반죽을 조물조물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하는 등의 감각적인 탐색을 하다가 밀어서 길쭉하게 만들어 본 것을 기억하여 한동안 계속해서 같은 놀이를 반복하면서 탐색을 즐긴다. 영아는 반복적인 탐색으로 새롭게 발견하거나 익히게 된 것을 몸에 익히게 되며, 한 가지 탐색을 확장하여 다른 방법으로 탐색을 하게 된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영아의 탐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동일한 재료를 여러 번 제공하여 탐색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 지나면 연관성이 있는 다른 자료를 제공하여 연계성이 있으면서도 확장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영아는 반복적 탐색을 즐기게 된다.

2) 수학적 탐구하기

가) 수량 인식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수량 인식하기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두 개 가량의 수 이름을 말해본다.	세 개 가량의 구체물을 말하며 세어본다.
	구체물을 일대일로 대응해본다.	

‘수량 인식하기’는 생활 장면에서 익숙한 사물의 많고 적은 양을 구별하고, 두 개 가량의 수 이름을 말해보고, 세 개 가량의 구체물을 말하면서 세어보며, 구체물을 일대일로 대응해 보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구체물의 많고 적음을 구별한

다. 1수준의 영아들은 하나, 둘 가량의 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2수준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 둘, 셋 가량의 수 이름을 말하고 셀 수 있으며, 발달이 빠른 영아들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의 수 이름을 말하기도 한다. 구체물을 일대일 대응 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수량관계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어휘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수학적 어휘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2세 영아는 많고, 적음을 구별한다. 영아는 일상적 놀이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수 이름을 사용하고, ‘많다’, ‘적다’, ‘누구 것이 더 많니?’ 등의 수량 비교 어휘를 사용하며, 교사가 일상적 경험 속에서 수 이름을 자주 말해주면 고유한 수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놀잇감이나 음식을 나누어 줄 때에도 교사가 먼저 일대일 대응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영아 스스로 일대일 대응을 경험하도록 한다. 영아는 작은 수까지 세어보기, 많고 적음을 비교해 보기, 일대일 대응하며 한 개씩 차례로 나누어주기 등의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수량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나) 공간과 도형에 관심 가지기

‘공간과 도형에 관심가지기’는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영아 자신을 중심으로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인식하는 것과 주변에서 매일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내용	1수준	2수준
공간과 도형에 관심 가지기	나를 중심으로 익숙한 위치, 장소를 인식한다.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나를 중심으로 익숙한 위치, 장소를 인식한다’는 것은 영아가 익숙한 위치와 장소를 인식하게 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인식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관련 어휘를 듣고 사용한다. 2세 영아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영아가 자신의 몸과 사물을 움직여 자신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위치, 방향, 거리 등의 관계를 경험해봄으로써 발달한다. 또한 2세 경 영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장소를 인식한다. 영아는 일상생활 중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익숙한 위치와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어휘를 자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간과 도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 사물의 모양을 지각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주변 사물의 모양에 따라 물체의 특성을 시각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2세 영아는 사물의 모양을 탐색하며 사물의 모양에 적합한 놀이로 확장시켜간다. 편편한 것은 쌓기와 늘어놓기를 하고 구멍이 있는 것은 끼워보면서 모양에 따른 특성을 인식한다. 모양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탐색할 뿐 아니라 자신이 찾은 모양을 표현하는 것도 즐긴다. 영아가 자주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 나타난 지각적 특성을 인식하도록 언어로 표현해 주도록 한다. 영아는 여러 가지 모양의 생활용품이나 놀잇감, 자연물, 종이벽돌블록, 끼우기 블록, 공, 2~3조각의 그림 맞추기, 모래놀잇감, 밀가루 점토 등으로 막대로 땅에 그림 그리기, 종이에 자유롭게 그리기, 가위로 오리기, 찢기와 붙이기, 블록을 위로 쌓기, 줄지어 늘어놓기, 다리 만들기, 단순한 구조물 만들기 등을 하면서 주변 사물의 모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 차이에 관심 가지기

내용	1수준	2수준
차이에 관심 가지기	주변 사물의 크기(속성의 차이에)에 관심을 가진다.	

‘차이에 관심가지기’에서 ‘주변사물의 크기(속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크기, 외형적 속성의 차이에 대해 지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물의 속성을 탐색하면서 두 물체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고 관련 어휘를 사용한다. 영아는 먼저 사물을 탐색하여 사물의 속성을 분명하게 안 다음에 이를 기초로 비교하기와 순서 인식하기가 가능해 진다. 영아들과 함께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두 물체 비교하기를 격려하도록 한다. 2세 영아는 다양한 크기와 길이, 무게의 블록, 자연물, 쌓기 컵, 크고 작은 인형 등의 비교하기에 좋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보고, 돌이 키 대보기, 신발 대보기, 손 대보기, 물건 두 개의 크기, 길이, 무게 비교해보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물의 속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라)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 가지기

내용	1수준	2수준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 가지기	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가지기’에서 ‘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 생활 용품이나 환경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적인 무늬나 색상의 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벽지나 바닥재의 색이나 모양의 규칙성을 경험하며, 옷, 포장지, 그림의 간단한 시각적 규칙성을 경험하고 관심을 가진다. 영아는 간단한 리듬이 반복되는 소리 듣기나 간단한 반복 어휘가 들어 있는 동화, 동시 듣기, 반복되는 의성어, 의태어 듣고 말하기 등의 규칙성이 있는 활동을 즐기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간단한 노래나 율동도 좋아한다. 2세 유아들은 매일 낮과 밤이 반복된다는 것, 반복되는 노래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영아는 반복되는 소리나 음악을 듣고 동작을 해 보며 간단한 규칙성이나 패턴을 이해하는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영아는 보육실의 규칙성이 있는 띠벽지의 무늬 살펴보기, 보도블록 무늬 보며 걸어보기, 간단한 어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짧은 동화 듣기, 친근한 리듬이나 멜로디가 규칙적인 음악을 반복해서 듣기, 규칙적인 구슬 꿰기, 색과 모양이 다른 블록으로 간단한 규칙성을 표현해 보기 등을 경험하면서 단순한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마) 구분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구분하기	주변 사물의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구분하기’에서 ‘주변 사물의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는 주변 사물을 한 가지 속성에 따라 같고 다름을 구분하게 되는 내용이다. 2세 정도의 영아는 차이점에 따라 사물을 모을 수 있고, 비슷한 것 끼리 모아서 구분하기, 비슷한 것을 단순하게 짝짓기 등을 한다. 관심 있는 놀잇감이나 사물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함께 모은다. 구분하기는 속성에 따라 사물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구분하기 능력은 사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토대

가 되며 나중에 통계개념 이해의 기초가 된다. 2세 영아는 사물을 구분하는 속성이나 기준이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영아가 자기 나름대로의 같고 다름의 기준에 따라 사물을 구분하고,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지어보는 활동이 영아의 놀이 속에 나타난다.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장난감 등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내 것’과 ‘남의 것’도 구별하게 된다. 2세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한 가지 속성에 따라 간단한 범주를 정하고 구분할 수 있다. 영아의 이러한 간단한 구분은 분류하기의 기초가 된다.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구분하기를 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구별하여 정리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붙여 놓도록 한다. 같은 종류의 작은 놀잇감을 구별하여 담을 수 있는 통도 준비해 준다. 개인 사물함에 영아의 사진을 붙여두고 자신의 물건을 남의 물건과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해 준다. 영아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소리 나는 것과 소리 나지 않는 것, 굴러가는 것과 굴러가지 않는 것, 물에 뜨는 것과 뜨지 않는 것 등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3) 과학적 탐구하기

가)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물체와 물질 탐색하기’에서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한다’는 주변의 친숙한 물체와 물질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사물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떨어뜨려보고, 물질을 만지고, 섞어본다. 다양한 종류의 공을 굴려보고, 발로 차보고 만져보고 던져본다. 승용 놀잇감을 타보고, 밀고, 끌어보고, 비누거품을 내어보고, 물감을 풀어 보고, 물감을 꼭 눌러 짜보기도 한다. 영아는 자신의 탐색행동에 대해 격려받고, 탐색행동의 결과, 변화과정에 대한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색 할 수 있게 된다.

나)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내용	1수준	2수준
주변 동식물에 관심 가지기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동식물에 관심가지기’에서 ‘주변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는 주변에서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날아가는 새의 움직임,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 기어 다니는 개미, 개 짖는 소리, 소의 울음소리에 관심을 갖고, 꽃과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꽃잎, 나뭇잎, 열매를 주워오기도 한다. 영아는 동물과 곤충 이름이 나와 있는 쉬운 책 읽어주기, 동식물 키우기,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 흉내 내기, 친숙한 동식물 관찰하기, 산책하러 가서 나뭇잎, 열매 줍기 같은 활동을 하게 해 주도록 한다. 2세 영아는 주변의 애완동물이나 작은 곤충이 내는 소리나 생긴 모양,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친숙한 동물들의 소리, 생김새, 움직임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된다.

다) 자연을 탐색하기

‘자연을 탐색하기’는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날씨 현상에 관심을 갖고 감각으로 느껴보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자연이 주는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날씨와 계절에 관련된 자연현상과 이에 따른 자연물을 인식하게 된다. 일상의 경험에서도 바람, 눈, 비, 어둠, 밝음 등과 관련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영아의 인식이 증진되도록 한다. 영아는 바깥놀이 활동과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자연물을 탐색하고 날씨를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내용	1수준	2수준
자연을 탐색하기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한다.	
	날씨를 감각으로 느낀다.	

‘돌,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한다’는 생활 주변에 있는 작은 돌이나, 물, 모래 등의 자연물을 탐색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산책이나 바깥놀이를 할 때

만나게 되는 작은 돌이나 물, 모래, 흙 등에 관심을 보이고 만져보고 두드리고, 쏟아 붓고 하면서 탐색한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자연 물에 대해 탐색하고 감각으로 느껴보도록 지원해 준다.

‘날씨를 감각으로 느낀다’는 자연 현상에 따라 변화하는 날씨를 감각으로 느끼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날씨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감각으로 느낀다. 영아는 자연현상과 사람의 생활을 단순하게 연결 짓게 되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장화를 신으며, 매일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는 것과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것, 바람이 불면 시원하고, 사물이 날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바깥놀이 산책을 나가서 날씨를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라) 생활도구 사용하기

내용	1수준	2수준
생활도구 사용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	

‘생활도구 사용하기’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내용이다. 2세 영아는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다. 영아는 TV·전등의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서랍을 여닫거나, 전화를 받거나,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는 등 생활에 관련된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려고 한다. 영아는 간단한 생활 도구 중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품들의 조작방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반복적으로 탐색하게 하고, 조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게 되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간단한 도구에 영아가 관심을 보이면, 천천히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여 주도록 한다. 빗자루, 쓰레받기 등 생활도구를 사용할 때 이름이나 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상호작용해 주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 중에서 2세 영아가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해 보는 내용이다. 보육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나 종이 조각 등을 영아가 사용하기 좋은 작은 크기의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여 청소해 보도록 격려하고, 블록 영역에서 쌓기 블록을 이용하여 식탁이나 아기 침대를 만들어서 놀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밀가루반죽으로 미술활동을 할 때 누르거나 찍을 수 있는 도구나 받침 등의 사용을 격려하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집필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집필 총괄 / 개요	이 미 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총론	김 명 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 영 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이 미 정	여주대학교 보육과 교수
	이 완 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최 혜 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 윤 선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훈련센터 센터장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오 유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각론	I. 기본생활	황 혜 정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II. 신체운동	이 미 정 여주대학교 보육과 교수
	III. 의사소통	김 명 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V. 사회관계	이 완 정 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V. 예술경험	최 혜 영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VI. 자연탐구	박 진 옥 동원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파본·교환문의 : 02) 488-643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955-010-1 (93370)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06-01

제작·보급 협력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전화 02) 701-0431(代) 팩스 02) 6901-0221

